

仁山의학

Journal of Naturopathic Medicine

August 2016
Vol.235

08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건강한 삶의 이정표



INSAN PEOPLE

배우로, 기획자로 종횡무진
무대 위의 '진짜 사나이' 김수로

ISSUE

서울 강남에서 열린
인산가 사업설명회



SPECIAL

죽임 산업화 29년
인산민세
수출민세



252차 1박 2일 힐링캠프 8월 19(금)~20일(토)

내가 가장 건강해지는 날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힐링캠프(쑥뜸수련회)

‘인산의학’의 의료 가치와 건강요법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리산 초자연에서의 힐링은 덤!
체험해 봐야 인산의 자연치유법이 와닿는다.
8월 인산가 1박 2일 힐링캠프에 동참하세요!

장 소	인산연수원(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48-4번지)
주요 일정	첫째 날 (8월 19일) 11:30 ~ 13:00 : 숙소배정 및 캠프 오리엔테이션 · 중식 13:30 ~ 16:30 : 지리산 칠선계곡 서암정사 돌레길 16:30 ~ 17:00 : 인산가 죽염제조장 견학 17:30 ~ 19:00 : 휴식 및 석식 19:10 ~ 19:40 : 쑥뜸 동영상 시청 19:40 ~ 20:00 : 생활 속 인산의학 강연(우성숙 교장)
	20:10 ~ 21:30 : 특별강연-‘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김윤세 회장)
	둘째 날 (8월 20일) 07:30 ~ 08:30 : 조식
	08:30 ~ 11:00 : 아침산책(인산연수원 일대)
	11:00 ~ 11:50 : 죽염 및 쑥뜸 요법 강연(김종호 이사) 11:50 ~ 13:00 : 캠프 기념 촬영 및 중식
셔틀버스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앞에서 탑승(아침 8시 출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8만 원(1인 기준, 인건보(우대) 회원은 7만 원)
참가 신청	1577-9585(인산가 서비스센터)

竹鹽을 탄생시킨 선각자의 慧眼

先生來世一大事 黃帝神話生龍雲 雪山長來結金剛 釋聖滅後現雲龍
時少猶先神農術 年青已破三教理 根天符而論大道 異達摩而教臥禪
了色用而表神境 觀星應而點靈藥 積靈分而成五核 集五行而造竹鹽
處方先念貧衆難 施灸必起死人命 晚住竹林完神藥 天不棄民降仁山

선생이 세상에 오신 일은 크나큰 사건/ 황제 신화가 용운면에서 탄생했네
허말라야 정기 흘러 금강산 이룰 제/ 석가모니 가시고 운룡 출현이라
유년시절에 신농 의술 앞지르고/ 청년 때 유불선 가르침 뛰어넘었네
천부경 근거해 건강의 큰길 밝히고/ 달마 좌선과 다른 와선 가르쳤네
색소작용 깨달아 신비세계 열었고/ 별 정기 살피 영약 찾아냈어라
영약분자 모아 활인핵 오핵단 빚어내고/ 오행정 합성해 죽염 만들었네
처방 내릴 제 가난한 이 배려하고/ 쑥뜸 베풀어 죽을 목숨 살렸어라
만년에 죽림에서 신약론 완성하니/ 인류멸망 막으려는 하늘의 보내심인가

오는 8월 27일은 죽염 산업화 29돌을 맞는 죽염의 날이다. 죽염의 날을 맞아 '건강의 적'으로 간주되어 질서와 천대를 받고 있던 미네랄의 보물 창고寶庫 한국산 천일염을 원료로 한 소금 법제법, 즉 죽염 제조 방법을 세상에 제시하여 신약神藥, 영약靈藥으로서의 소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수많은 사람의 암, 난치병, 피질의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인산 김일훈仁山 金一勳·1909~1992 선생의 탄신 87주년 기념 헌시를 소개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산 선생께서 계룡산 백암동에 머물며 그곳 서당書堂에서 한학漢學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께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제자백가의 글을 공부한 바 있는 심석心石 유재풍柳在豊 선생이 인산 탄신을 기념해 1996년 5월 12일 짓고 써서 보내온 시이다.

황제黃帝는 중국 최고의 의서醫書 《황제내경》의 주인공을 일컫는 것이고 신농神農은 백 가지 풀의 맛을 일일이 살펴 '신농본초학'을 정립했다고 알려진 염제 신농炎帝 神農을 지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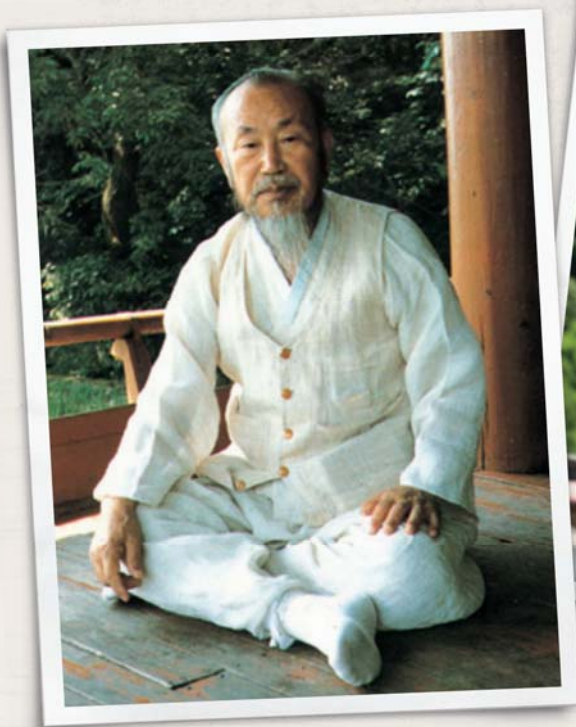
이 시는 천부적 의료 능력과 혜안慧眼으로 기존 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신의학 이론과 방약方藥을 개발하여 현대 암, 난치병, 피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참의료의 큰길'을 명명백백하게 제시한 인산 선생의 일생을 칠언 16구절, 112자로 요약 표현한 것으로서 선생의 일대기 중에서 중요 사항들을 적시하여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다. ㉠

글 김윤세(본지 발행인,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

출 김 윤 세

인산가
—
캠페인

죽염 산업화 29주년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으로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일념은
활인구세活人救世의 신화를 만들며 참의료의 실체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병든 이들의 완쾌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가난과 외로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겨온 김윤세 회장은
그 숭고하고 신비로운 의방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응용하며
인산가를 죽염명가의 건강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죽염 산업화 29주년, 분명 당신을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엄홍길 대장 DMZ 대장정에 인산가, 죽염제품 4년째 지원



120년 건강본가(주)인산가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제4회 DMZ 평화통일대장정 행사에 인산가에서 생산하는 죽염과 장류 등 제품을 지원했다.

인산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7월 9일 무더위를 뚫고 통일을 기원하며

휴전선 155마일을 걷는 대학생들이 자칫 탈수증으로 건강에 위협이 초래될까 우려해 행군 간에 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기에 담긴 9회 죽염 300개를 제공했다. 또한 대장정 행사 기간 내내 대원들이 죽염장류로 조리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죽염된장과 죽염고추장 총 45kg, 죽염간장 9l를 지원했다. 체력소모가 많은 행사인 만큼 걸으면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죽염건빵 160봉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인산가는 DMZ 평화통일대장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죽염과 죽염장류 제품을 4년째 지원하고 있다.

DMZ 평화통일대장정은 지난 7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7월 23일까지 14박 15일간 진행됐다. 2013년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시작된 DMZ 평화통일대장정은 엄홍길 대장과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휴전선 길 155마일(350km)을 함께 걸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다. [출처]

글 한상현 사진 엄홍길휴먼재단

8월 인산가 주요행사 및 강연일정																														
1			2			3			4			5			6															
7 입추 도미			8			9			10 전주지점 강연			11			12			13												
14			15 광복절			16 강북지점 강연			17 인천지점 강연 대전지점 유환오리 사식 및 세미나			18			19 대구지점 강연			20 25차 1박 2일 힐링캠프												
21			22			23 서대문 구 강북지점 강연 부산지점 강연			24 강남지점 강연 인천지점 강연			25 대전지점 강연			26 광주지점 강연			27 29주년 죽염의 날 기념식												
28			29			30			31																					

코넥스 임직원 힐링캠프

중소기업 주식 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는 오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인산연수원에서 힐링캠프를 갖는다. 코넥스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지리산 트레킹을 비롯해 죽염제조장 견학, 인산의학 힐링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산가는 지난해 12월 21일 죽염업계 최초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대전 여교장단 건강여행

대전광역시 여성교장단 20여 명이 오는 8월 12일 인산연수원으로 지리산 건강여행을 떠난다. 행사에서는 김윤세 회장의 '내 안의 자연이 나를 깨운다'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듣는다.

마산여고 교직원 힐링투어

경남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70여 명은 지난 7월 21일 인산연수원을 방문해 인산가 죽염장류 제조장 견학 및 인산가 소개 등 힐링투어를 가졌다.

군산교육청 합숙 세미나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경남 함양 상봉산에 위치한 인산연수원에서 합숙 세미나를 가졌다. 교육청 관계자 70여 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는 인산가 소개와 교육청 친목 도모 행사가 진행됐다.

8월 인산가 전국 지점 강연 일정

강북지점 강연
8월 16일(화) 강연: 김중호 이사
8월 23일(화) 강연: 김중호 이사

강남지점 강연
8월 24일(수) 강연: 우성숙 교장

인천지점 강연
8월 17일(수) 강연: 우성숙 교장
8월 24일(수) 강연: 김중호 이사

광주지점 강연
8월 26일(금) 강연: 김중호 이사

대구지점 강연
8월 19일(금) 강연: 우성숙 교장

부산지점 강연
8월 23일(화) 강연: 우성숙 교장

대전지점 강연
8월 17일(수) 유환오리 사식 및 세미나
8월 25일(목) 강연: 우성숙 교장

전주지점 강연
8월 10일(수) 강연: 김중호 이사



“정상 체온 유지, 내 몸 면역력 좌우한다”

“단전혈(丹田穴)에다가 (쑥뜸) 태우면 그 강자극(强刺激)에서 오는
신경 회복, 그 온도에서 오는 신경정상은 36~37℃라,
이걸 내내 유지하면 인간은 늙지 않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굴하고 굽신거리는 그런 성질이 없어져요.”

— 인산 김일훈 대표, 《신약본초》 전편 중에서

뜨거우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인간은 뜨겁게 태어난다. 아이 때는 체온이 높아 얼굴이 불그스레하다. 젊을 때는 땀 났을 때 뜨겁게 불타오른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붉은색은 옅어지고 몸은 메말라 간다. 몸에 수분이 적어지면 살과 수분이 충분하던 젊은 때와 달리 급속도로 차가워진다. 결국, 흰머리가 늘고 몸은 차가운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 36.5℃이다. 그런데 암 환자를 비롯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체온은 정상인의 체온보다 낮다. 만약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면 자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체온은 그만큼 중요하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느냐가 암 치료 내지는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몸 안에 쌓인 냉기 방지하면 병(病) 온다

인체의 배(복부)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모여 있다. 배가 따뜻하다는 것은 내장 기관이 따뜻하다는 것이고, 내장 기관이 따뜻하다는 것은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모든 장기의 표면을 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장기 또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몸이 차가워 냉기가 침입했다면 혈관이 오그라들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당연히 장기도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위에 오면 급체와 복통이요, 어느 장기에 장기간 냉기가 쌓이게 되면 암이 되는 것이다.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 몸의 체온은 50년 전에 비해 1℃ 정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중증 질환, 아토피 환자들은 예외 없이 체온이 낮아 36℃를 거의 넘지 못하며, 말기 암 환자의 체온은 보통 35~35.5℃라고 한다. [출처]

글 박홍희(건강 칼럼니스트 · 저서 《암에 걸린 사람들》)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시발점 여원의 21세기 버전 女元뉴스

“자금은 아니지만 결국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이다”

출산장려금, 지자체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줬다 말았다
부여금, 넷 이상 낳으면 1,000만 원, 쌍둥이엔 100만 원 더 지급

소득 많고 초혼 연령 낮을수록 아기 많이 출산하는 이유
자녀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

술, 사고 내는 사람도 '술이 웬수'인 걸 알고는 있다

직장인 60% 이상이 연차도 사용 못 한다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증거들

연예인이라 해서 모두 말쑥꾼은 아니다

수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워킹맘이 맞벌이에 대해 남편보다 덜 만족하는 이유

물카 범죄자가 걸려도 겁 안 내는 것은 물령 팔죽 처벌 때문

인터넷 신문 최초의 '좋은 사' 읽기

[가슴을 여세요 詩 들어갑니다] 박후기 시화전 연재

굿네이버스는 베리굿이다, 여성이 화장이라

베리베리굿이다

같은 직장 동료가 '물카범'일 때 생기는 아찔한 사건들

www.yeowonnews.com

여성의 성공, 여성이 행복, 여성이 경제력 확보를 위한 女元의 정신을
인산가가 적극 지원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검색창에 여원뉴스를
쳐보세요!

죽염에 중독된 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자기 몸속에 있는 의사가 병 고쳐준다는 말 맞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대 선수들 중 전설이라고 불리는 타자가 있다. 34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한
타율 4할1푼2리의 주인공 백인천 전 감독. 그가 죽염 마니아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기적같이 회복된 것도 '죽염 퍼 먹은' 덕이었다.

글 한상현 사진 조혜원 · 뉴스시

지난 7월 16일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린 서울 고척돔구장 마운드에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프로야구 원년의 기록 4할1푼2리, '불멸의 4할 타자'라 불리는 백인천(74) 전 감독이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들은 일제히 모자를 벗고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선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백인천 전 감독은 존재 자체가 전설이다. 그런 그가 죽염 마니아라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

20년 전 뇌경색 입원... 휠체어 신세 지게 돼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던 1996년, 경기를 마치고 귀가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식사하라는 아내의 목소리에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이 온 것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정상 회복은 어렵다고 했다.

“아내가 담당의사에게 ‘고칠 수 있습니까?’ 물으니 즉답을 피하더군요.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운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해야 하



“아프면 의사가 병을 고친다 생각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속에 의사를 두고 있어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의 98%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죽염으로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는 것이잖아요. ‘아 여기선 치료할 방법이 없구나’ 생각했죠.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환자에게 운동을 하라는 말은 ‘회복 불가능’ 선고나 다름없었다. 반신불수半身不遂의 몸을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 문을 나서면서 ‘야구에 중독돼 프로선수가 됐으니 이제 건강에 중독돼 건강 프로가 돼 보자’고 마음먹었다.
19세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백 전 감독은 73kg 이었던 몸무게가 3개월 만에 58kg으로 줄었다. 밥 먹고 야구만 했다. 야구에 미쳤고 지독하게 야구만 했다. 1년 6개월 만에 일본 프로야구 1군 무대를 밟았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던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의 머릿속에는 건강 밖에 없었다. 퇴원 후 남한산성을 기어오르며 재활운동을 했다는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죽염을 섭취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약 끊고 죽염으로 건강 완전 회복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책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했어요. 문제는 혈액에 있더군요. 피가 탁하니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지인이 구운 소금을 그에게 전했다. 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소금을 먹으라고 하니 황당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싶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었다. 인체 필수 미네랄이 소금에 다 들어 있는데 천일염은 독성이 있으니 구워 먹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소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으면서도 불안했다. 혈압이 160을 넘기던 때였다. 그런데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

다. 좋은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 그때부터 전국 팔도 좋다고 소문난 소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산화환원력ORP-Oxidation-Reduction Potential을 검사하는 테스트 기구를 구입해 직접 확인하며 다녔다. 그때 만난 것이 죽염이었다.
“ORP를 검사해 보면 구운 소금은 -1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죽염은 -400을 쉽게 넘기는 거예요. 4배나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며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ORP 테스트 기구를 꺼냈다. 9회 죽염을 물에 녹인 후 컵에 기구를 담그자 0이던 숫자가 3분도 안 돼 -300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니 멈추지 않고 수치가 계속 떨어졌다. 예상치인 -400을 넘겼다. 인터뷰 내내 숫자는 내려갔고 20여 분이 지나자 -562에서 멈췄다.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매달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당의사가 ‘무얼 드시고 계세요’라고 물어봐요. 혈압, 혈당 모두 정상이니깐요. 그냥 약 잘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염 먹는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 약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면 제약회사 다 문 닫아야죠’라면서 웃더군요.”
의사가 농담 반 진담 반 건넨 이야기 속에는 뼈가 있었다. 실제로 백 전 감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끊고 죽염 섭취만으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활은 죽염에서 시작해 죽염으로 끝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염수로 눈을 세척하고 죽염수로 양치와 가글을 한다. 비염이 생기면 죽염수로 코 세척을 한다. 밥을 할 때도 반찬을 만들 때도 죽염수를 넣는다.

죽염수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죽염 500g에 물 2l를 넣고 녹인 후 불용분이 가라앉은 맑은 죽염수를 이용했다. 고체죽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기도 하지만 이 죽염수를 더 많이 쓴다고 한다.
“우리 집엔 화장품이 없어요. 죽염수를 바르면 각질이 생기지 않고 피부가 촉촉해져요. 모기에 물렸을 때도 죽염수를 쓱 바르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70대인 제가 아직도 흔들리는 치아 하나 없이 건진 것도 다 죽염수 덕분이죠.”

“건강 프로가 되려면 스스로 참의로 깨달아야”

프로야구 선수에서 건강 프로로 변신하면서 현대의학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그는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양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센 걸 찾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양약은 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집에 약만 한 보따리에요. 오히려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는 속병을 고치는 것은 약인데 양약은 이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터득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격이나 투구에 대해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스스로 깨달아 본인만의 것을 찾아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프로가 되려면 스스로 참의료를 찾아 깨달아야 합니다.”
백 전 감독은 죽염의 효능과 가치가 제대로 연구돼 우리나라 국민 모두 제법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했다. 그에게 죽염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병을 고칠



1 백 전 감독이 죽염의 산화환원력(ORP) 테스트를 하고 있다.
2 백 전 감독이 지난 7월 16일 열린 2016 KBO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



그이기에 죽염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확고했다.
오랜 일본 생활로 그에게 일본인 친구들이 많다.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죽염을 소개한다. 자신의 건강 회복 비결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선 생선회를 소금에 적어 먹곤 하는데 죽염을 선물하니 그 맛에 반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들이 직접 죽염을 주문해 먹을 정도다.
백인천 전 감독은 인산의학 독자들에게 건강 프로로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아프면 의사가 병을 고친다 생각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속에 의사를 두고 있어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의 98%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죽염으로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배우로, 기획자로 중횡무진 무대 위의 '진짜 사나이'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내 남자 배우 인기 순위'에서 김수로는 안성기, 송강호, 정우성, 장동건, 황정민 등에 이어 8위에 올라서 있다. 막강한 필모그래피가 있는 것도 엄청난 문제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방송과 영화, 연극 등 모든 장르에 도전하며 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스타덤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그를 '대학로 최고의 강자'로 부상하게 한 '김수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며 배우의 영역에서 스테이지 프로듀서로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글 이일섭 사진 이경호

성공한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동분서주

'부끄럽게 퇴장하지 말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배우 김수로는 요즘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배우로 방송인으로 연극 프로듀서로 너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가 그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동시에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비장한 문구를 주문처럼 되뇌고 있다.

요즘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단연 혜화동이다. 오 수석이나 해서 들어간 대학의 연극과 시절부터 시작된 긴 무명의 시간 동안 그는 이 대학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로미오의 대사를 외우며 담벼락마다 포스터를 붙이는 일에 도가 터야 했고 그의 다가감을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표를 파는 유능한 빠끼가 되는 게 급선무였던 시절! 그때에 비하면 성공한 배우이자 프로듀서인 그가 감내해야 할 오늘의 스트레스는 분명 격과 질이 다른 고뇌임에 분명하다.

2011년 제1탄 <발칙한 로맨스>로 시작된 '김수로 프로젝트'는 그간 <이기동 체육관> <유희 블로그> <택시 드리벌> 등을 히트시키며 19탄 <곤투모로우>로 이어지는 대학로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됐다. 물론 그간의 시리즈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뉴욕을 오가며 수입해 온 라이선스 뮤지컬 <머더 발

라드>와 막 이룩한 18탄 <까사 발렌티나>는 세트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무모한 도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 싸움을 매우 좋아한다. 얼마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의 초연극이 사랑받는 레퍼토리로 성장하길 고대하며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하우와 요령은 제작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문제는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 작품은 가벼운 인스턴트 식품이 돼버린다. 그간에 없던 더 많은 고민과 전투적인 대응, 깊은 통찰을 통해 차선이 아닌 최선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은 힘들지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는 이정표가 돼주곤 한다.

현실 속의 캐릭터를 더 리얼하게 만드는 재능

"저 사람 진짜 철가방 아냐?"라는 의문을 남겼던 <주유소 습격사건>을 시작으로 "표정이 정말 만화"라는 탄성을 불러일으켰던 <흡혈형사 나도열> 그리고 트레이닝복이 차림의 전부인 학창 시절 체육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울학교 이티>에 이르기까지 그는 영화배우라기보단 영화 속의 그 사람 같은 남자로 기억되는 배우다. 빼어난 대신 평범함을 미덕으로 하는 그의 외모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는 현실 속의 캐릭

"내겐 김상중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다. 하지만 배우가 되면서 김수로라는 예명에 더 익숙해졌고 이제 그 이름이 더 좋다. 주변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때 아직도 내 이름 앞에 배우라는 두 글자를 쓴다. 프로듀서와 제작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배우라는 내 본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다."



터를 더 리얼하게 만들어 내는 그의 재창조력과 여백이 있는 연기 내공이 그를 더 현실 속 인물로 기억하게 하는 이유다.

‘협상’은 불량배와 주먹 쓰는 어게’를 베이스로 하는 그의 코믹 캐릭터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정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는 〈연풍연가〉 〈나를 잊지 말아요〉 풍의 멜로를 가장 리얼한 로맨스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는 배우다.

“내겐 언제나 밑바닥과 변두리 냄새가 배어 있는 배경이 주어졌죠. 어게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팔뚝엔 정그런 문신이 있는 좀 한심한 인생. 그러다 사색과 명분, 사랑과 미학을 세련되게 얘기하는 ‘임태산(〈신사의 품격〉)’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내게도 이런 스마트한 배경이 주어지는구나 하며 패제를 불렀었죠. 불량스런 모습 대신 믿음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매우 흥미로웠거든요. 나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센스라고 생각해요. 적나라하거나 노골적으로 또는 운치 있거나 기품 있게 상황과 순간을 만들어 내는 연기력은 그 센스에 기인하죠. 물론 혼자서만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상대 배우들과 균형을 이루는 하모니는 더 중요하지만 배우는 어떤

시대의 특성과 개인의 고유성을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폭을 갖고 있어야 해요.”

‘김수로 프로젝트’ 19탄째... “나의 길 간다”

배우 김수로는 자신의 너무 솔직한 성격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한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나 깊이를 고려하지 않은 진심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이롭지 않음을 누차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땐 더 과묵해지려고 노력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라 깊은 밤에도 번개를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은 경청하는 위치, 침묵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다. 그런 이유로 그의 번개는 후배들에게 유독 인기가 높다고.

MBC 리얼 버라이어티 〈진짜 사나이〉에 참여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췌리〉의 특수요원이나 〈반칙왕〉의 레슬러, 〈패밀리가 떴다〉의 지방 출격 게스트를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복싱과 댄스, 조깅과 필라테스로 단련된 날렵한 보디를 갖고 있음에도 출연진 중 가장 더딘 몸놀림과 빈약한 구호로 팀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대원이 되곤 했다. 폭탄주 20잔



- 1 '김수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총행장(이기동 체육관), 절친 강성진과 함께하며 정극의 매력을 절감한 의미 있는 무대다.
- 2 '김수로 프로젝트' 다섯 번째 작품인 〈유립 블로그〉는 대학로 TOM 1관에서 공연 중이다.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그답게 시리즈 중 이 무대에 가장 큰 애정을 갖고 있다.
- 3 제12탄으로 부활 무대에 성공한 〈택시 드리벌〉의 실황 장면. 우연히 택시에 올라타 덕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의 '무서운 형아' 연기는 김수로 연기 내공, 베스트 원에 해당된다.
- 4 '김수로 프로젝트' 제19탄인 〈곤투모로우〉의 한 장면. 그는 김옥균의 충직한 보디가드인 '와다'로 분한다.

김수로가 들려주는 건강한 삶

- '김수로 프로젝트' 18탄인 〈까사 발렌티나〉가 막 신호탄을 올렸고 5탄인 〈유립 블로그〉의 새 버전이 공연 중이며 19탄 〈곤투모로우〉가 9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즐기게 또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다. 무대는 내게 시계와 나침반 같은 존재다. 지금이 몇 시인지, 또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으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한다."
- 배우 · 방송인 · 제작자 · 프로듀서 등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다. "내겐 김상중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다. 하지만 배우가 되면서 김수로라는 예명에 더 익숙해졌고 이제 그 이름이 더 좋다. 주변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때 아직도 내 이름 앞에 배우라는 두 글자를 쓴다. 프로듀서와 제작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배우라는 내 본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다."
-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 새 작품을 만드는 일."
- 마흔여섯 살이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예전엔 클라이맥스 장면이 평소의 80% 세기만 사용하라는 조언을 들곤 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든 동작이든 내면의 집중력이든 내 내공 함량의 80%만 사용해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
-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나. "A형처럼 예민하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는 사람."

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은 게 몸에 대한 예의라고 여기던 그에게 더 이상 야전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지만 그런 반성과 발견을 바탕으로 힘겨운 촬영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는 유독 여행을 좋아한다. 19편으로 채워진 '김수로 프로젝트' 중 가장 애착을 두는 작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서슴없이 〈유립 블로그〉를 꼽는다. 사색을 하기에 여행만큼 좋은 기회도 없지만 낯선 길 위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물론 근간의 근심조차 감미롭고 상쾌하게 만드는 여행의 신비를 그는 삶의 활력으로 삼고 있다. 런던 웨스트엔드는 그가 가장 동경하는 여행지다.

오페라에서부터 뮤지컬, 발레, 클래식 뮤직, 실험극 등 너무나 다양한 장르와 다원화된 공연 내용에 심취하다 못해 어지러운 지경이지만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서울의 대학로가 결코 웨스트엔드에 뒤질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역사가 일천하고 그래서 거칠고 얼마간은 조악한 느낌도 없진 않지만 대학로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그 이상이란 생각이 든다. 성숙한 시각과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린스 에드워드나 새들러스 웰스 같은 엄청난 명성의 극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대학로의 시골벽적인 활기와 고향과 같은 편안함 속에서 더 큰일을 해내야 한다는 일념이 커지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 금실 상징하는 '자귀나무'

껍질 달여 마시면 불면증 · 우울증 해소

글 김효정 사진 서터스톡

여름철 길가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자귀나무만큼 눈에 띄는 것이 있을까. 여름이면 분홍빛, 붉은빛 꽃이 가지 끝에 모여 피는 자귀나무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화려한 꽃과 신기한 잎... 관상용으로도 인기

3~7m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공작새의 깃털처럼 화려한 꽃 덕에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알고 보면 꽃보다 더 특이한 것이 바로 잎이다. 긴 타원형에 가장자리가 밋밋한 잎이 서로 어긋나게 양쪽으로 피었다가 해가 지고 나면 펼쳐진 잎이 마주보며 접힌다. 비가 오는 날이나 쌀쌀한 날씨에도 포옹하듯 서로 붙어 있어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져 합혼목·합장수·합환수·합환목·야합수 등으로 불린다.

꽃이 진 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콩고투리 모양의 열매가 익는데, 바람이 불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하여 '여자들의 수다처럼 시끄럽다'는 뜻의 여설수(女舌樹)로도 불린다.

소화불량 개선 및 혈액순환 촉진에도 효과

자귀나무는 한방 약제로도 쓰임새가 다양해

사람에게 두루 이롭다. 특히 한방에서는 자귀나무의 껍질을 말려서 합환피(合歡皮)라는 약제로 사용한다. 껍질을 강한 불에 덥혀 건조하면 더 좋은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

합환피에는 알칼로이드와 타닌·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진정 효과가 있어 정신을 안정시켜 주기에 한방에서는 합환피를 신경쇠약·불면증 환자에 처방한다. 《동의보감》에도 합환피가 근심을 없애고 나와 있는데 우울증이나 건망증, 신경성 소화불량에도 두루 좋은 효능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자귀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잠을 포근하게 자게 한다 하여 '잠자는 나무'라고도 부른다. 합환피는 또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이뇨 작용을 해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좋으며 통증을 멎게 하며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효과도 있다.

민간에서는 껍질뿐 아니라 잎과 꽃도 약용으로 사용한다. 비타민C가 풍부한 어린잎은 약한 불에서 여러 번 덥혀 건조해 차로 우려 마시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고 하고, 꽃을 따서 자연 건조시켜 차로 마시면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천식·기관지염·폐렴·임파선염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

“《신약》《신약본초》를 읽으면 참 의료와 백세건강이 보인다”



보릿고개가 오면 산에 올라 진달래를 따 먹었다. 먹을 수 있는 진달래를 다른 말로 참꽃이라고 한다. 반면 진달래보다 더 화려한 철쭉은 개꽃이라고 부른다. 참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의료다. 참의료가 아닌 의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이번 호는 김윤세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인산가 회장)가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51차 힐링캠프에서 참의료인 인산의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한상현 사진 김종연



인산 선생의
활인구세 정신을
계승하고 강연을
통해 이를 인류에
전하며 30여
년을 보냈다.
그리고 누구나
인산의학을 통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죽음을 산업화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이윤 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산가는 기업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기보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함양까지 왔으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야 하
지 않겠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 참의료를 깨
닫고 터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한 가지다. 참의료를 깨달아 여
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120세 천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리시라는 것이
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득이 타 의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깨달아
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우
왕좌왕하다 결국 참의료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기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첫 자부터 끝 자까지 찬찬히 읽어봐요

많은 분이 힐링캠프에 참가하거나 인산의학 공개강
연을 들으면 인산 김일훈 선생의 저서인 《신약》《신

약본초》를 구입한다. 참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
으니 좀 더 공부해 보고자 책을 사는 것일 게다. 그런
데 그 책 속에 있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공을 들여야 한다. 대충 대강 읽고 다 봤다고 하면 안
된다.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럼요, 읽어
봤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자신의 병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고 덮는 경우가 여럿이다. 《신약》
《신약본초》는 첫 자부터 끝 자까지 찬찬히 읽어봐야
한다. 《성경》《불경》《주역》《논어》 등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책들의 특징은 읽고 또 읽
으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터득하고 깨닫게 된다.
한두 번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신약》
《신약본초》또한 마찬가지다. 처음 읽으면 대부분 어
렵다고 한다. 그런데 읽고 또 읽으면 참의료인 인산
의학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암·난치병·괴
질에 걸려 삶의 희망을 잃었던 이들이 누구나 건강하
고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의 활인구세 정신을 계승하고 강연
을 통해 이를 인류에 전하며 30여 년을 보냈다. 그리
고 누구나 인산의학을 통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죽음을 산업화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이윤
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제가 만나는 기업가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에 대해 조언한다. 그러
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산가는 기업의 이
익 추구를 우선하기보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
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인산가는 월간 《인산의학》을 매월 12만 부 이상 발
행해 회원들에게 일일이 배송해 드리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까먹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의
1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까지 25년 동안 월간
지를 발행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
가 건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참의료를 깨달아야 제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
다. 생물학적 자연 수명은 120세다. 《황제내경》이나
《성경》도 인간의 수명을 120세라고 언급하고 있다.

참의료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일반상식이
아니다. 반드시 터득해야 할 지혜다. 머리에 지식으
로만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 참의료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인 왕양명王陽明은 지식과 행위
에 관한 근본이 되는 명제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
장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실천해 지식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
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리가 아프다’ ‘땀도 나고 귀
찮다’ 등 핑계를 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선 자기 노
력이 있어야 한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현대의학이 종교도 아닌데 왜 무조건 믿는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바른말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선진
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 바른말하는 의료인이 없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같은 현실이 증명된다. 사
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의
사인대 생명과 관련된 참의료에 대해선 바른말을 하
지 않는다. 바른말을 하면 의료계로부터 온갖 비난
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궁하면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인도 사람들에게 적용 불가한
말이다. 인도에서는 수행을 위해 일부러 굶는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집 담을 넘는 일은 없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아이들에게 경쟁과 편법을 먼저 가르친다. 착
하게만 살아서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몇십 년 후 고령자를
당할 판인데도 애들을 감싸고 돈다. 뉴스를 보면 아
버지와 아들이 기업 경영권을 두고 싸우지 않나, 잔소
리하는 부모를 망치로 때려죽이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인다. 요즘은 집
에서 애완동물만 기르는 게 아니다. 요령과 불법이 판
치고, 지식은 있는데 따뜻한 인간미가 없으며, 도리를
모르는 짐승도 함께 기르는 것일지 모른다.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직 의
사들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몇 가지 설명하겠다.
일본의 의학자인 시바다 지로는 《히포크라테스는 죽
었다》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유방암 진단 40%가 오
진’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후생성 장관에게 “의사들
은 입만 열면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왜 안 하느냐”고 공개 질의를 하기
도 했다. 또한 곤도 마코토는 40년간 10만 시간을 연
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그는 풍
부한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암은 손대는 것보다 방
치하는 게 낫다. CT촬영 한번으로 암이 유발될 수 있
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참의료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현대의학이 종교도 아닌데 왜
무조건 믿는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현대의학
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참의료의 표상
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 발달한 의학이다. 과학이 뒷
받침하고 있다지만 허점투성이다. 저도 어렸을 때는
현대의학이 모든 병을 낫게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의사들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다. 염라대왕도 아니고, 하
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그리 쉽
게 하나. 의사의 말을 듣고 자포자기한 사람은 대부
분 사망했다. 삶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
을 의료계가 의료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가하고 있
다.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암세포 없애려다 먼저 죽어

마쓰모토 미쓰마사라는 일본인 의사가 10만 명의 환
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고
혈압은 병이 아니다》이다. 책에는 ‘정상 혈압은 자기

1986년 출간된 《신약》도 세상의 의학을 통째로 바꿀 책이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인산의학이 활용되고 있다. 골절상을 입으면 홍화씨를 먹는 것이나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유향오리도 인산의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인산의학은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또한 인산의학을 깨닫고 실천해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라고 했다.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의 기준은 160이었다. 그런데 현재 고혈압의 기준치는 120이다. 고혈압도 아닌데 고혈압으로 간주돼 약을 먹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고혈압 기준이 해마다 하향 조정되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의료진도 타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이 내려가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쓰모토 미쓰마사는 "기준치 10을 낮추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제약회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도 의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로버트 S. 멘델존 박사처럼 바른말하는 의사도 있다. 1991년 노벨의학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한 조엘 월렉 박사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써 영양학계는 물론 의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영양부족'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체의 건강을 위해 90여 가지의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식사를 통해 모두 공급해야 하는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10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했다. 60가지 미네랄, 16가지 비타민, 12가지 필수 아미노산, 3가지 필수 지방산 등 90여 가지의 영양소만



잘 섭취해도 900가지 질병 중에 800가지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의 앤드루 와일 박사는 통합의학의 권위자다. 그는 《자연치유》라는 책을 통해 '건강을 위해 서양의 학적인 어떤 치료도 받지 마라. 파, 마늘, 생강 등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순리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독일계 미국인인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 '암은 인체의 마지막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의학적인 진리다. 현대의학은 암을 공격, 파괴, 제거하려고만 한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면역세포까지도 죽인다.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의 3대 요법은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면 이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만 암은 침입자가 아니다. 정상세포가 상세포로 변하는 이유도 몸의 통제를 거부하는 돌연변이가 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암세포를 절대 없앨 수 없다. 암세포를 없애려다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인체 구성 61가지 원소가 함유된 죽염

암·난치병·피질을 치유하는 묘방과 신약을 만천하에 공개한 이가 있다. 바로 인산 김일훈 선생이다. 현대의학이 포기하면 인산의학은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한다. 천 배 만 배 훌륭한 의방이 바로 인산의학이다. 《신약》책 맨 처음에 소개된 죽염만 보아도 얼마나 훌륭한 신약인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61가지다. 산소, 수소, 탄소, 질소를 빼고 57가지 원소

“Read <Shinyak> and <Shinyak Boncho>, And You'll See True Medicine and a Long, Healthy Life.”

The quickest way to realize true medicine is to read <Shinyak> and <Shinyak Boncho> from cover to cover. If you read <The Bible> and <Buddhist Scriptures>, among other classics, over and over again, you will learn all the lessons in them. But you won't fully appreciate those lessons if you only read them a couple of times. If you repeatedly read <Shinyak> and <Shinyak Boncho>, then you will learn the meaning of Insan Medicine and its value as a true form of medicine.

And true medicine isn't something you can just get by without fully knowing its value. You must have a full grasp of it. And you can't afford to just keep your knowledge to yourself; you have to practice it. Famed Chinese neo-Confucian scholar Wang Yangming preached the theory of the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You must go beyond merely knowing something - you have to put it into practice to make sure your knowledge and action become one. We all know exercise is good for our health. But most of us don't actually work out because we may be tired and hurting and or simply we can't bother. To lead a healthy life, you have to put in the work. If you don't put into practice what you know, then you won't realize anything.

Dr. Joel Wallach, a nominee for the 1991 Nobel Prize in Medicine, caused a major stir in medicine and nutritional science with his book, <Dead Doctors Don't Lie>. He argued that most of the modern people are dying of undernourishment. There are about 90 essential nutrients to ensure a healthy body, and they must be fed during meals. If we lack one of them, then we could come down with about 10 different diseases. American doctor Andrew Weil is a major authority in integrative medicine. In his book <Spontaneous Healing>, Weil argued we shouldn't receive any treat-

ment from Western medicine, and that curing diseases with green onions, garlic and ginger was the rational and natural course of action. Dr. Andreas Moritz said cancer was the human body's final survival mechanism. The modern medicine only attempts to destroy cancer. Anti-cancer therapy kills cancerous cells, but it also destroys important immune cells. You could never get rid of cancerous cells that way. You may end up dying first.

Insan Kim Il-hun unveiled, once and for all, just the treatments and medicine to cure cancers and other terminal diseases. Insan Medicine picks up where the modern medicine gives up hope. There are 61 elements in a human body, and bamboo salt contains them all. Place bay salt inside the bamboo trunk, and roast it eight times in a pine wood-fired furnace, and then melt it at 1,600 degrees Celsius to get bamboo salt. It alone can cure diseases.

Azaleas paint mountains pink in spring. You can make pancakes with azalea petals, and can brew tea with them. Edible azaleas are called 'chamggot.' Royal azaleas are referred to as 'gaeggot.' The prefix 'gae' usually means inferior quality. True medicine, or 'cham' medicine in Korean, is the one that makes people live. No other form of medicine can do that.

I am convinced Insan Medicine has the power to make the mankind healthy in the future. Medicine must have its effect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oth letters of the word 'medicine' mean 'to cure.' But how could we call something medicine if it can't cure anything? Insan Kim Il-hun introduced the world to Insan Medicine, the truest form of medicine there is, without any selfish, ulterior motive. And if you realize the meaning and value of it, then it will change your life forever. Insan



가 있는데, 하나의 물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죽염이다. 질병 치유에 있어 미네랄의 보고인 죽염을 부지런히 먹으라고 하면 소금을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느냐고 반문한다. 예전엔 음식으로 미네랄 섭취가 가능했지만 지금의 식재료에는 예전과 비교해 미네랄이 현저히 적다. 온전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일염이다. 그런데 이 속에는 미네랄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독소도 함께 들어 있다. 인체는 천일염 속에 있는 독소 정도는 해독할 수 있어 먹어도 탈은 없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기 어려운 소금을 먹으면 탈이 난다. 우리나라 소금의 종류는 천일염, 제염염, 정제염, 가공염 등 총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서해바다 갯벌에서 태양열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이 바로 천일염이다. 이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구워 만든 것이 죽염이다. 8번 굽고 마지막에 1,600도의 고열로 소금을 물처럼 녹여 새로운 물질로 만든 것이 죽염이다. 죽염 하나로도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전문가라며 방송에 나와서 ‘소금이 몸에 해롭다’ ‘짜게 먹으면 암에 걸린다’ 등 싱거운 소리를 한다. 일부러 짜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제 식성대로 먹는 것’이다. 봄이 되면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예쁜 꽃이 진달래다. 먹을 게 없던 어린 시절 산에 올라 진달래 많이 따 먹었다. 화전도 부쳐 먹고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진달래를 다른 말로 참꽃이라고 한다. 반면 진달래보다 조금 늦게 피지만 더 화려한 색으로 등산객의 시선을 빼앗는 꽃

이 철쭉이다. 보기에 예쁘지만 먹을 수는 없어 개꽃이라고 부른다. 살구 중에도 밭깎만 좋은 개살구가 있고, 떡 중에도 개떡이 있다.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의료다. 참의료가 아닌 의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인산의학 실천하고 건강 찾는 사람들

1543년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2,000년 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알고 있던 천동설을 뒤집은 책이다.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펴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책이다. 1986년 출간된 《신약》도 세상의 의학을 통째로 바꿀 책이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인산의학이 활용되고 있다. 골절상을 입으면 홍화씨를 먹는 것이나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유허오리도 인산의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인산의학은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인산의학을 깨닫고 실천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자칭 죽염호배자라는 사람들이 와 인사를 건넨다. 이들은 죽염의 효과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다. 이들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죽염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저를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로만 보지 않는다. 제 손을 꼭 잡고 ‘진짜 좋은 일 하신다’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한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오로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걸만을 걸은 세월에 대한 여러분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산의학이라는 참의료가 미래의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의료라는 것은 효능과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는 한문으로 병 고칠 醫者, 병 고칠 療者를 쓴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는 의료를 의료라고 할 수 있나.

인산 김일훈 선생이 제시한 인산의학은 사심 없이 의학적 진리를 세상에 내놓은 참의료다. 여러분이 《신약》 《신약본초》를 공부하고 터득해 지혜로 삼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120세 천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读《神药》和《神药本草》 就可以看到真医疗和百岁健康！”

懂得真医疗的最快的方法，就是从头到尾精读《神药》和《神药本草》。被誉为人类最佳古典作品的《圣经》、《佛经》的特征，就是一读再读它们就能领会并懂得其所蕴含的教诲。读一两遍很难领会其意义。一读再读《神药》和《神药本草》，就理解并体会到真医疗——仁山医学的意义和价值。

真医疗并非是一个知道也好不知道也罢的一般常识，是一定要掌握的智慧。知识装进脑子是不行的，必须要走进真医疗之路。中国明朝儒家王阳明以知与行为之本的命题主张“知行合一”，就是不停留在知，知与行合作在一处，知便是行，能行便是真知。人人都知道，运动有益健康。而人们往往“喘不过气”、“腿疼”、“烦”等理由不付诸于实践。为健康一定要做出努力，知而不行动、不付诸于实践就很难理解、领会到真医疗的价值和意义。

1991年，被选为诺贝尔医学奖候选人的Joel Wallach博士，通过《已死亡的医生不说谎（Dead Doctor's Don't Lie）》一书，不仅给营养学界，对医学界引起了很大的反响。现代大部分人因“营养不足”而死亡。为了身体的健康，90多种营养素是必不可缺的，而且都是通过饮食来提供。如果缺一种，就会患10多种疾病的。美国安德鲁·韦尔（Andrew Weil）博士是结合医学的权威者，他在《自愈力》中主张，“为了健康，不要接受西方医学的任何治疗。使用葱、蒜、生姜

等治病是合理的、自然的”。美籍德国人 Andreas Moritz说，癌症是人体最后的生存战略。现代医学只是攻击、破坏、去除癌症。抗癌治疗是杀癌细胞，但也一起杀维持我们生命的重要的免疫细胞。这一方法绝对不能根除癌细胞的，根除癌细胞之前，人会先离开人世的。

有人已把治疗癌症、疑难病、怪病的妙方和神药向全世界公开，他就是仁山金一勋先生。抛弃现代医学，仁山医学就开始治愈病。人体有61种组成因素，而在一个物质都含这一因素的就是竹盐。天日盐放进竹筒，用松木柴烤八次，最后使用1600°高热将盐融合成水，然后再制成新的物质，那就是竹盐。只用竹盐，也可以治愈疾病。每到春天，碧血染红满山的的金达莱，可以做花饼吃，也可以泡茶喝。就这样，我们把可以吃的金达莱堪称真花。而比金达莱更加华丽的山踯躅，韩国俗称为“gae花”。前缀“gae”意味着不同、质量差。真医疗就是救人的医疗，不是真医疗就无法救活人。

深信，仁山医学这一真医疗，具有让未来人类更加健康的力量。医疗应以效能和效果为后盾，“医”字和“疗”字都是治疗疾病之意。然而，治不了病就很难说是真医疗。

仁山金一勋先生所提出的仁山医学，就是大公无私地把医学真理公开与世界的真医疗。如果大家领悟到真医疗的意义和价值，将是一个改变人生的宝贵的机会。 



Special Theme

죽염 산업화 29년 인삼, 민세 작품만세

인산 김일훈 선생은 죽염을 산삼, 홍화씨와 함께 3대 신약이라 칭하고 내 몸을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는 죽염을 먹으라 했습니다.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담아 황토로 입구를 봉한 뒤 가마에 넣어 소나무 장작불로 아홉 번 구워내야 비로소 탄생되는 죽염. 인산가는 만드는 이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이 죽염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8월 27일 함양군청으로부터 국내외 최초로 죽염 제조 허가를 받아 가내 수공업 수준이던 죽염 제조 방식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에 죽염은 참의료를 통한 환인구세를 실천하신 인산 선생이 자연치유 묘방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대중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죽염의 대중화를 이끈 인산가의 죽염 산업화가 올해로 29주년을 맞습니다. 죽염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랐던 인산 선생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죽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 봅니다.

글 김효정 사진 김중연

시련 · 좌절 딛고 '죽염은 건강 동반자' 인식 정립 인산가, 이젠 글로벌 세상으로 전진

지난 1987년 8월 27일 인산가는 당시 함양군청 상공계로부터 죽염 제조 허가를 받고 세계 최초로 죽염 산업화를 시작했다. 인산가는 이후 여러 위기와 외부의 악의적인 왜곡을 극복하며 죽염 대중화에 성공. 누구든지 죽염 및 죽염이 함유된 제품들을 곁에 두고 먹을 수 있게 됐다. 인산가 죽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29년을 되짚어본다.

글 김효정 사진 양수열, 인산가



'한쪽이 막힌 대나무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후, 높은 열에 아홉 번 거듭 구워내어 얻은 가루로서 난치병 치료 등에 사용된다.' 사진 속 죽염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이야 죽염이 사전에도 나오고, 누구든지 쉽게 죽염의 효능을 알 수 있지만 29년 전만 해도 죽염이란 단어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대부분의 사람은 죽염을 그저 소금의 일종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런 죽염이 오늘날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강식품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윤세 회장이 지휘하는 인산가의 열정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죽염은 이만큼 대중화되지도, 지금처럼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신약》출간 이후 죽염 산업화 필요성 대두

평생을 환인구세에 쏟은 아버지로부터 인산의학을 전수받은 김윤세 회장은 죽염을 비롯해 여러 자연요법에 대한 인산 김일훈 선생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986년 《신약》 책을 출간했다. 5년여 동안 인산 선생의 구술을 받아 집필한 《신약》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온갖 자연치유요법이 담겨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는 사람만 알던 죽염이 이 책 출간 이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신약》에는 죽염의 의미와 가치뿐 아니라 제조 방법

과 응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죽염을 직접 만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염을 구하겠다고 함양으로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늘었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1986년 가을 무렵, 김 회장은 인산 선생의 명으로 죽염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가내 수공업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김 회장은 《신약》에 제시된 죽염 제조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누구나 쉽게 죽염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1987년 8월 27일 정부로부터 죽염 제조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죽염 산업화의 첫 삽을 떴다. 김 회장은 같은 달 인산가의 전신인 '인산식품'을 설립해 죽염 제조 공장을 세우고, 세계 최초로 죽염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죽염 업계, 급성장 이후 치른 혹독한 신고식

이후 국내 죽염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죽염의 인기가 치솟자 기존의 건강식품 업체도 죽염 제조에 뛰어들었고 신생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1990년대 초반 100여 개 회사가 죽염 생산 업체라는 문패를 걸고 있었다. 그러다 죽염 산업이 미디어의 신중치 못한 보도로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 터졌다.

1993년 9월 한 방송사에서 '소금바탕, 만병통치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 죽염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방송에 나온 죽염 먹고 사망한 환자의 사례는, 조사 결과 생소금을 복용한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 일주일 후 정정보도가 나왔지만 대중은 차가웠다. 이 일로 죽염 생산 업체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됐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은 인산가는 이때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았다. 자체 발행하는 월간지를 통해 죽염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 등 해외 연구기관에 죽염의 안전성 연구를 의뢰했다. 인산의학에 근간을 둔 인산가의 죽염은 곧 대중의 마음을 돌렸고, 1995년 5월에는 함양군 수동농공단지 내에 제2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다. 인산가는 안주하지 않고 대중에 더 큰 신뢰를 주



- 1 죽염 제조 산업화 이전인 1986년, 천일염 넣은 대나무를 태우던 모습.
- 2 인산 김윤세 선생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산의학의 죽염의 효능을 알렸다.
- 3 인산가 죽염제품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된 천일염으로 만들어 칼슘, 요오드,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 4 인산 선생은 《신약》 출간 이후 스스로 터득한 자연치유요법을 강연회를 통해 공개했다.

기 위해 같은 해 7월 미국 하버드 의대 부설 다나파 버암센터에 인산죽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 '죽염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화 10년 만에 인산가 주도로 죽염조합 설립

미디어의 부채질에 죽염 업계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한 김윤세 회장은 다른 죽염 생산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득, 1997년 4월 정식으로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다. 김 회장은 초대~5대 14년 동안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죽염의 품질 기준 마련, 원자재 공동구매, 회원사 고충처리 등 죽염 산업을 다시 안정케도에 올려놓았다.

죽염 산업이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한일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던 200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논문을 인용해 '죽염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각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식약청에서 발표한 다이옥신 죽염은 단 한 개 업체였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한 연구원의 허술한 논문이 언론에 무책임하게 공개되어, 정성들여 죽염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마저 큰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다이옥신 파동'이라 회자되는 이 사건은 죽염조합을 중심으로 식약청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청장과 해당 간부를 제소하며 마무리되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식약청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양한 죽염 제품을 대중에 더 가까이

이후 2010년에도 한 방송사에서 죽염의 품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지만 이 역시 철저한 제검사 결과 방송사의 무지에 의한 일방적 보도로 드러났다. 이젠 이미 인산의학을 따르고 인산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충성고객이 많았기에 인산가는 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몇 차례 위기를 겪으며 인산가는 더 단단해졌다. 산

업 초기와 비교해 더 위생적이고 기능이 높은 생산 설비를 갖추고, 국내외에 죽염의 효능을 알리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한 인산가는 2004년 4월 죽염 업계 최초로 해외로까지 시장을 넓혔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죽염을 알렸다.

이 여세를 몰아 국내 죽염 시장 규모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2007년 염관리법(모든 식품에 정제염만을 쓰도록 한 법)이 개정돼 그전까지 '광물'로 분류돼 있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듬해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며 전국 음식점에서도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산가는 2008년 12월 인산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해 끊임없이 죽염과 그 밖의 생산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에는 죽염 업계 최초로 말레이시아 이슬람계 발부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해 이슬람국가로의 수출길을 열었고, 최근에는 국내 면세점에 입점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죽염류 및 기타 제품을 판매하며 죽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인산가는 죽염뿐 아니라 말바늘, 홍화씨, 유향오리, 마른 명태, 다슬기, 호두액, 유근피 등 인산 선생이 제시한 명약들을 제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또 죽염두부, 죽염견빵, 죽염김 등 죽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최근에도 죽염포도당, 죽염견과류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신제품들을 꾸준히 내놓으며 죽염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인산가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죽염은 일부 기성세대들의 선호식품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산가는 짠맛은 건강에 해롭다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 탄생해 죽염 산업화 이후 지난 29년 동안 꽃길과 가시밭길을 오가며 죽염 업계에 성장시키고 있다. 현대의학에 대한 대중의 맹신이란 벽에 막혀 아직까지 '죽염=짠맛=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혹을 완벽하게 불식시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죽염의 효능·효과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문]

죽염 산업화 29년의 역사

역사의 시작

1986~2000

- 1986.06 인산 김일훈 선생의 저서 《신약》 출간
- 1987.08 세계 최초 죽염 산업화, 인산식품 설립
- 1989.07 건강전문 월간 잡지 발행(《인산의학》)
- 1992.03 주식회사 인산가 설립
- 1995.05 제2공정 준공(함양군 수동농공단지 내)
- 1995.07 하버드 의대 인산죽염 연구 보고서 발표
- 1997.04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설립



도전과 발전

2001~2008

- 2001.06 벤처기업 등록
- 2002.10 정보화 우수중소기업 선정
- 2003.04 가공식품우수상 수상(함양군)
- 2006.07 지역특화기술혁신선도기업 선정
- 2006.12 이노비즈(INNOBIZ) 기업 인증
- 2008.12 인산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미래를 위한 도전

2009~현재

- 2009.11 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
- 2009.12 인산죽염 홍보, 전시관 건립
- 2011.12 지리산곶기 개설팀
- 2012.11 대한민국 벤처기업 대상
- 2013.04 말레이시아 할랄(HALAL) 인증 획득
- 2015.12 코넥스 상장
- 2016.03 국제한식조리학교 산학협력 체결



죽염 · 관련 제품 시장 연 수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 업계 한목소리 내야 상생 및 윈윈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해 죽염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죽염시장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가고 있다. 해외 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고품질 영품 소금으로서 죽염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선 죽염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 한상현 사진 양수열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죽염조합)에 따르면 국내 순수 9회 죽염 매출은 연간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죽염을 활용해 생산되는 공산품까지 합하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죽염으로 만든 전통장류부터 김, 두부, 건빵, 커피, 견과류, 죽염환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LG생활건강에서 중국에 수출한 죽염치약만 1,233억 원이다. 죽염비누, 죽염화장품, 죽염 관련 식품 등 생활용품과 해외 수출액까지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 죽염조합의 설명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가공염(태움·용융) 사업체 수는 57곳이지만 구운 소금 생산 업체까지 포함돼 있어 죽염 제조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소규모 자가 생산 업소까지 합하면 순수 죽염 생산 업체 수는 최대 40여 곳을 넘을 것으로 죽염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원사 현황 (설립연도순)

조합원사	대표자명	설립연도	주소
인산가	김윤세	1987	경남 함양군
개암죽염식품	정락현	1988	전북 부안군
민속죽염	최태규	1988	경북 영덕군
삼보죽염	김인석	1993	전북 고창군
영진그린식품	호병재	1993	충남 서산시
경방원죽염	최동순	1995	경북 상주시
홍국농신	송기철	1998	경남 함양군
인산죽염촌	최은아	1998	경남 함양군
고려전통식품	기순도	1999	전남 담양군
영평식품	이성구	2001	충남 공주시
코리아솔트	박시우	2001	경남 함양군
가야죽염	김건명	2002	경북 고령군
예대로식품	천세현	2002	경남 창녕군
선술죽염	김재현	2003	경남 함양군
지리산장수촌	임승호	2003	경남 함양군
도해죽염	주경섭	2004	충북 괴산군
한국로하스식품	신민규	2006	전북 고창군
운장죽염	김정희	2010	전북 진안군

자료: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및 회원사 홈페이지 참조



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는 18곳

1986년 《신약》 책 발간 이후 죽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때는 죽염 생산 업체가 100여 개를 상회할 정도였다. 하지만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다이옥신 파동 등 몇 차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영세 업체들은 상당수 정리됐다. 현재 죽염조합에 가입돼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는 18곳이다.

죽염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초대부터 5대까지 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김윤세 인산가 회장의 역할이 컸다. 죽염 생산 업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김 회장은 업체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1997년 4월 정식으로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아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발기인으로 참석한 18개 회원사는 19년 세월이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했다. 현재 죽염조합사 수는 변화가 없지만 조합 창립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인산가를 포함해 5개사뿐이다. 죽염조합은 창립 초기 죽염의 주재료인 천일염과 송진의 공동구매를 통해 고품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또한 죽염 품질검사를 통해 조합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품질 균일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죽염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개발 · 해외시장 개척 등 할 일 산적

공동구매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인 증마크 부착 업체도 1곳뿐이다. 현재 죽염업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죽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다. 고길용 죽염조합 전무는 “정부 기관 및 국내 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해 죽염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동구매, 해외수출 판로개척, 죽염 연구개발 등 죽염조합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합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고길용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미네랄 소금을 차지하려는 소금전쟁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며 “죽염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면 죽염조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문]

죽염 원조 논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산 선생 ‘9회 죽염’ 창안이 정설

죽염의 원조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죽염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 창안한 것이 정설이다. 선조들이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고 1~3회 구워 쓰던 것을 인산 김일훈 선생이 9회 용융 과정까지 거치는 현재의 죽염제조법으로 처음 창안해 냈다. 인산가를 죽염 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산 선생의 조부인 김면설 의원부터 현 김윤세 회장까지 4대에 걸쳐 죽염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9회 죽염 제조법을 창안하고 이를 산업화시킨 인산가의 정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진표율사로부터 전승”... 고증 안 돼

항간에 전라북도 개암사 부사의방에서 진표율사로부터 전승되어 활용되어 온 민간요법이라는 죽염스토리를 몇몇 죽염업체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개암사에서 죽염을 굽던 주지승이 모 업체와 함께 죽염을 만들면서 상업적 차원에서 전한 이야기라는 것이 죽염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삼국유사》 《송고승전》 《금석문》 등에 전하는 진표율사 사적에 보면 그가 죽염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진표율사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서 출가했고 득도 후에 금산사를 크게 중창하며 미륵장륙존상을 조성했다. 진표율사가 죽염 제조법을 전승했다면 금산사 주지에게 전했을 것이다. 진표율사가 들른 적도 머문 적도 없는 개암사 주지에게 죽염 제조법을 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 9회 죽염 제조법을 창안한 것도 최초로 산업화한 것도 인산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참고자료: 월간 《민약학》 청간호



항암

항비만

암세포 증식 유전자 성장 및 전이 억제 구운 횡수 증가할수록 체중 감소율 높아

죽염은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아토피, 비염, 면역증강, 암 예방, 항암, 항염증 효과, 비만 예방 등 그 기능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죽염의 날을 맞아 죽염의 항암 효과와 항비만 효과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박건영(차의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사진 김중연

1. 죽염의 항암 효과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소금 중 죽염은 항암, 항염증 및 항비만 효과가 있음이 많은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강 협막암 세포(TCA8113)를 이용한 연구에서 죽염은 일반 천일염에 비해 2~3배 정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죽염은 AGS 인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했다. 정제염이나 천일염보다 9회 죽염은 특히나 3~5배의 항암 활성을 보였다.

정제염·천일염은 위염 억제 못 해

죽염은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COX-2와 iNOS) 발현을 감소시켜 암세포를 자살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 증식과 관련된 유전자(p53, p21) 등을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쥐를 이용해 에탄올과 염산 등으로 위염을 일으키고 소금의 보호 효과를 관찰한 결과 정제염과 천일염은 위염을 억제하지 못했으나 9회 죽염은 오메프라졸 약제와 비슷하게 위염 억제 효과를 보였다. 간 건강에 있어서도 9회 죽염은 사염화탄소에 의해 유발된 간 장애의 지표인 AST와 ALT, LDH의 활성을 크게 억제했다. 간염을 일으킨 쥐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iNOS, COX-2, TNF- α , IL-1 β)들을 현저히 억제해 간염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간염

예방 효과는 9회 죽염, 1회 죽염, 천일염, 정제염 순이었다. HepG2 인체 간암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암세포의 자살을 피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했고 염증 관련 유전자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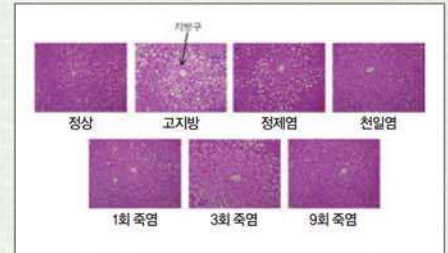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입증

죽염의 항암 효과는 쥐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대장암(Colon 26-M3.1)세포를 주사했을 때 암세포들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정제염과 천일염은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었지만 죽염은 1회, 3회, 9회 죽염의 순으로 전이를 더 많이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코마(Sarcoma-180) 암세포를 쥐에게 이식하고 여러 종류의 소금을 먹이에 배합해 먹인 후 28일 후 종양의 크기를 측정했다. 여기에서도 정제염과 천일염은 종양 생성을 억제하지 못했으나 9회 죽염은 종양 생성을 40~50% 정도 억제했다.

결국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달랐다. 죽염은 암 예방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암을 예방하는 효능은 구운 횡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이는 굽는 동안 생성되는 OH $^-$ (항산화 효과), H $_2$ S, 미네랄 성분 및 대나무로부터 합성된 식물화합물 등이 이러한 암 예방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2. 죽염의 항비만 효과

죽염은 다른 소금에 비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실험 쥐에게 8주간 고지방 먹이(high fat diet)를 먹여 비만을 유도하고 각각 다른 종류의 소금물을 먹였다. 체중의 증가폭은 천일염>정제염>1회 죽염>3회 죽염>9회 죽염 순으로 나타났다. 식이효율도 죽염의 경우 암 예방 효과와 비슷하게 구운 횡수가 증가할수록 체중 감소율이 높아졌다. 비만 조직(정소지방)과 간의 무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지방 먹이를 먹었을 때 소금의 종류에 따



(그림) 신경세포학적 관찰

라 체지방이 감소되었는데 죽염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간 조직과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PPAR- γ , C/EBP α 그리고 SREBP-1c 등)의 발현을 현저히 억제했다. 이런 억제 기능 또한 죽염 굽는 횡수에 따라 높아졌다. 특히 이들 유전자의 발현이 9회 죽염 처리군에서는 크게 억제되어 정상 쥐의 간 조직 형태와 비슷해졌다.

9회 죽염, 비만 유도해도 살 빼는 활성 보여

또 다른 쥐를 이용한 항비만 실험은 8주간 고지방 먹이를 먹게 해 비만을 유도한 후 이어 8주간 소금시료를 배합한 고지방 먹이를 먹게 해 항비만 효능을 관찰했다. 죽염을 처리한 쥐에서는 혈청의 중성지방이 정상 쥐와 비슷한 양으로 감소되었고, 총콜레스테롤 함량도 많이 감소되었다. 간과 신장지방의 무게도 감소했고 혈청의 렙틴 함량도 크게 줄어 9회 죽염은 비만을 억제할 뿐 아니라 비만이 유도되어도 살을 빼게 하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에서의 H&E 염색에서 고지방 먹이군에서는 지방구가 크게 나타났으나 죽염에서는 지방구의 크기가 정상 쥐와 비슷하게 나타나 죽염은 특히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박건영 교수

차의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탄자의 항암 효과를 밝혀낸 발효 음식 분야 세계적인 석학. 미국 식품과학회, 식품안전성학회, 정화원, 탄자·청국장·고추장 등 전통장 및 김치 관련 연구 논문 320여 편 발표. 주요 저서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2가지) (항암체소 영양 사전) 등 다수.

면역력 키워주고 비만 예방 효과도

소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대체제가 없는 영양 물질이다. 특히 소금은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생활습관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어떤 종류의 소금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할지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소금에 관해 밝혀진 새로운 연구 내용과 어떤 소금을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 함경식(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 교수) 사진 한준호



면역 증진

천일염으로 만든 죽염 효과 더 높아

유명 학술잡지인 《Cell Metabolism》에 소금 섭취와 면역과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2015년에 발표됐다. 몇 년 전 한 논문은 나트륨이 피부에 축적된다 발표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내었다. 논문에서는 동물 실험을 이용해 소금을 많이 먹인 그룹과 적게 먹인 그룹에 인위적으로 피부 병원균을 감염시켰을 때 두 그룹 모두 처음에는 감염이 되나 얼마 후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의 회복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밝

혀냈다. 소금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에 축적되는 나트륨은 상처가 생길 부위 또는 병원균이 감염된 부위에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동물,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감염 부위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면역학자들에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소금을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국산 천일염을 열처리해 만든 죽염이 면역 활성 증진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비만 방지

동물실험서 소금 적게 먹은 그룹이 더 비만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소금이 비만을 일으킨다고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소금이 비만을 일으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모두 간접적인 연구에 의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학술잡지 《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소금이 비만을 예방한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2015년 발표된 이 논문은 동물에 고열량식을 먹이고 소금의 양만을 바꾸었는데 소금을 적게 먹은 그룹이 예상과 달리 더 비만인 것을 발견하고 기전을 분석한 결과 혈압에 관계한다고 알려진

레닌-엔지오텐신 시스템(Renin-Angiotensin System)에 영향을 주어 음식의 소화효율을 떨어뜨려서 비만예방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최근 소금의 종류에 따라 비만방지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죽염은 비만방지 효과가 다른 소금에 비해 탁월함이 보고되었다.

우울증과의 관계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짜게 먹는 경향

많은 사람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짜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문도 2014년 《Appetite》에 발표됐다. 이 논문에서는 소금섭취량과 우울증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이 결과는 여성에 있어서 뚜렷했다. 그리고 우울한 경우에 짜게 먹는 이유는 우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의 방어 기능으로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금에 대한 식욕은 뇌에서 결정된다는 이전의 논문과 일맥상통하다.

최근의 소금 논쟁

하루 권장량 섭취 과학적 근거 부족

건강하려면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저 나트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는 극단적인 금염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건강에 이로울지 최근 외국학계에서 벌어지는 소금 논쟁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세계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 중 하나인 미국의학학술원(IOM)에서 2013년 나트륨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이전에 하루 소금 5.8g 이하 섭취를 권했으나 지금은 이 이하 섭취가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2005년부터 나트륨 저감화를 주도한 IOM의 이력을 보았을 때 이 논문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 섭취와 혈압, 건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최근 소금 섭취가 줄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가 의학계의 유명학술지 《JAMA, New England J. Med, Lancet》에 여러 편 소개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에 좋은 죽염이나 천일염에 주목을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섭취해야 하나? 지금까지 연구에 사용되었던 소금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었다. 이들은 섭취 시 유해활성산소가 발생되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알려졌다. 최근 한국산 천일염 섭취 시 미네랄이 없는 일반소금에 비해 유해활성산소 발생이 적다는 것이 보고되었다(《Food Sci. Biotechnol》2014). 그리고 죽염은 유해활성산소 발생이 더욱 적다는 것(《J. Food Biochemistry》2015)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한국산 천일염과 죽염이 유해활성산소 발생이 적은 이유가 다른 소금에 비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줄여주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건강 목적으로 선택 시 죽염을 능가할 소금은 없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권장 소금섭취량은 하루 5g이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학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잡지 《New England J. of Med》에 2014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7~15g이 적정 섭취량이라고 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10~12g 섭취하는 한국은 적정량의 상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소금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건강에 좋은 소금, 즉 한국산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죽염 등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1]



함경식 교수

천일염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함경식 박사는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와 동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식약처 식품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몸 살리는 천연미네랄 소금》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다.

위대한 존재로 부활한 소금의 새 이름은 '죽염'

소금 장수 김윤세 회장에게 죽염 산업화 29주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아버지 김일훈 선생의 신의학新醫學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립而立, 삼십 세에 죽염 산업화를 결심한 그가 여전히 지친 기색 없이 과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 죽염은 분명 좋은 기운을 함유하고 있는 생명의 결정체結晶體임을 짐작하게 된다. 죽염 산업화 29주년에 즈음해 다가올 인산가의 100년을 전망하는 김윤세 회장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본다.

글 김윤세(본지 발행인,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 사진 김중언

오는 8월 27일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죽염이라는 물질이 산업화를 통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거룩한 역할과 기능을 시작한 뜻 깊은 날이다. 모든 생명의 생체 시스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도리어 인류의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 못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 외면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 이 시대 소금의 초라한 위상位相이다.

소금이 오랜 역사를 통해 더없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유해물질이라는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소금의 원죄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 적지 않은 과학자들에 의해 인류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소금이 인류 건강상에 야기되는 제반 문제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의 유해성을 부각시켜 '소금 유해론'으로 정착시킨 것이 오늘날 '소금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 하겠다.

즉 소금 구성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곧 소금이고 99.9%의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만들어 내 그것을 과학적으로 정제하여 만들어 낸 순수한



소금이요, 위생적으로 제조된 우수한 품질의 소금이라고 착각한 데서 소금에 대한 근거 희박한 부정적 시각과 인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영리 추구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산업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소금이 해롭고 따라서 당연히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유사 이래 소금은 만병통치의 신약神藥이자 영약靈藥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가 있었다. 그는 지혜로운 '소금 법제'를 통해 소금 속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유익한 성분을 늘려 인류의 병마 퇴치와 건강 회복 및 증진에 크게 활용해서 각종 암, 난치병, 피부질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일련의 저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한 유일한 명의名醫였으니 그가 곧 인산 김일훈仁山金一勳·1909~1992 선생이다.

'민초들의 의황醫皇'이요, '불세출의 신의神醫'로 불리는 인산 선생은 1986년 6월 15일 펴낸 그의 저서《신약神藥》을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창조적 신의학新醫學 이론과 효능 효과가 탁월한 방약方藥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유향오리 산업, 홍화씨 산업 등 토종 농림축수산물의 약성 활용으로 현대 암, 난치병, 피부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신산업을 탄생시켰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염 산업이다.

필자는 인산 선생의 창조적 신의학 이론과 방약에 대한 이야기를 5년여에 걸쳐 일일이 구술口述받아 그것을 집대성하여 국판 540여 페이지 분량의《신약》이란 의서醫書로 만들어 세상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아버지이자 수차례 난치병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금 '신문기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잠시 돌아갔으나 곧이어 새로운 사명이 다시 주어졌다.

《신약》에 등장하는 '죽염'을 '제조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인산 선생께 쇄도하였고 인산 선생은 그 책을 직접 편집한 내게 공식적으로 "죽염을 구워 낼



'민초들의 의황醫皇'이요, '불세출의 신의神醫'로 불리는 인산 선생은 1986년 그의 저서《신약》을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창조적 신의학新醫學 이론과 효능

효과가 탁월한 방약方藥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유향오리 산업, 홍화씨 산업 등 토종 농림축수산물의 약성 활용으로 현대 암, 난치병, 피부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신산업을 탄생시켰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염 산업이다

리 유통시켜라'는 부촉附屬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 한 편으로는 시험적으로 죽염을 구우면서 또 한 편으로는 공식적으로 대량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죽염 제조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1년여 만인 1987년 8월 27일 마침내 함양군 상공계로부터 국내 외 최초의 죽염(가공염) 제조 허가를 받아 산업적 죽염 제조를 개시하였다.

유학자로서 그 지역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유의儒醫의 전통을 지닌 집안의 분위기상 죽염 제조 허가를 받아 산업적 생산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껴서 열심히 한 것이 사실이지만



1 1990년 새해 벽두에 치러진 인산가 죽염 제조장의 현판식. 김윤세 회장은 몹시 호숫해했던 그날의 인산이가 눈에 선하다고 얘기한다.

2 인산의학의 집대성을 위해 시도된 <신약>의 편찬 사업은 실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인산 선생의 구술을 정리하는 데에만 5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김윤세 회장은 이 기나긴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신묘한 의방과 속 깊은 철학을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개한다.

3 김윤세 회장은 '힐링캠프'와 정기 강연, 특강 등 연간 1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해 인산의학의 자연치유 방안을 전하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이 시작됨에 따라 단순한 영리 추구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를 계속해 나갈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거듭됐다. 인산 선생께서도 본인이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제시한 방약을 활용해 자식이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오해 소지가 없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죽염 산업 리딩기업으로 자리 잡은 인산가

하지만 여러 우려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사업의 속성상 일단 사업이 시작돼 본격화된 뒤로는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듯 선뜻 뛰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금만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신약> 출간 30주년, 죽염 산업화 29돌, 회사 창립 29주년을 맞게 되었다.

또한 기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지도 여언 15년이 지났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인산가를 상장하기도 하였으며 제조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죽염 산업의 리딩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경상남도, 함양군과 협의하여 용지 및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농·공·상 복합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죽염 산업은 이제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산 선생께서 인류를 암, 난치병, 괴질로부터 구제하려는 성스럽고 원대한 목적을 갖고 그 묘방妙方과 신약神藥으로 죽염 등을 제시한 취지에 따라 죽염의 의미와 가치를 비롯해 인산의학의 이론과 방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뛰어나다 보니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필자도 어느덧 60대 초반에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반백髮의 인생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옛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요즘도 1년에 1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에 나가 인산 선생

소금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여겨질 무렵 혜성처럼 등장한 인산 선생의 생래적 해안과 오랜 경험에 의해 더없이 지혜로운 소금 법제법이 등장하면서 미네랄의 보고인 한국 서해안 갯벌의 천일염은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금 본래의 위상을 넘어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불멸의 존재를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께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해 어떤 사리사욕도 없이 80평생 동안 정당한 치료의 실상實相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양의학 일변도로 추진되던 국가 의료 정책이 양한방 통합의료로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따르며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의료 체계가 인류의 건강이라는 공동의 지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좀 더 유익한 의료 체계로 거듭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 생각된다. 뿌리 깊은 전통의학의 맥을 면면히 이어온 동양의 철학적 의료와 다양하고 폭넓은 과학적 성과를 수용하며 발전을 거듭해 온 서양의 과학적 의료를 통합시킬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경>에서도 언급된 소금의 중요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태복음 제5장 13절)"라고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혼탁한 것을 정화하여 늘 청정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력淨化力과 물이나 음식물의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력防腐力, 음식의 맛을 돋우고 서로의 자극적 성분들을 잘 조화시켜 주는 화쟁력和力의 상징으로서의

소금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금이 맛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갯벌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끓여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분해를 통해 염화나트륨을 추출하여 만드는 소금이 등장하면서 감칠맛, 고소한 맛 등 소금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맛의 조화를 상실하게 되었다. 오로지 짠맛, 쓴맛을 내는 '소금 아닌 소금', 즉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 염화나트륨이 99%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이 오랜 세월 인류가 사용해 온 진정한 의미의 소금을 대체하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의 가정을 현실로 만들게 되었고 그 뒤로 존귀하기 이를 데 없는 소금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금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여겨질 무렵 혜성처럼 등장한 인산 선생의 생래적 해안과 오랜 경험에 의해 더없이 지혜로운 소금 법제법이 등장하면서 미네랄의 보고인 한국 서해안 갯벌의 천일염은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금 본래의 위상을 넘어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불멸의 존재를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의 자연치유력 증진을 통한 자연스런 암, 난치병, 괴질의 퇴치와 건강 회복, 생명 평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위대한 존재로서의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금 부활復活하게 되었다. 위대한 존재로 부활한 소금의 새 이름은 '죽염'이다. ㉔



등산객들이 발해의 유적이 있는 피단산을 내려오고 있다.

북위 43도 동토의 땅에서 발해 유적을 보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산의 위도는 북위 35도에서 37도 내외가 대부분이다. 기껏 높아 봤자 38도쯤 된다. 더욱이 한라산은 33도쯤으로 더 낮다. 우리나라 트레커들이 많이 찾는 해외의 산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산은 그리 흔치 않다. 네팔의 히말라야도 기껏 북위 30도 내외밖에 안 된다. 북위 43도 06분 25.1에도 등산할 산이 있다. 위도만 보면 완전 동토의 땅이다. 정말 한반도 최북단 위에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피단산이 바로 그곳이다.

글 · 사진 박정원(필간산 부장)

블라디보스토크는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 이후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뿐 아니라 휴양객까지 찾는 지역이 됐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피단산은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하다. 일제 항일운동의 초기 본거지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인근에 있는 우수리스크 주변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압제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1930년대 이후 스탈린의 분리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는 아픔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다. 멀리는 고구려의 후손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호령했던 때도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향토박물관에 발해 관련 유적이 몇 점 전시돼 있다.

1,339m 정상까지 6시간 30분 걸러

등산로 입구 앞, GPS로 고도를 확인하니 불과 392m 밖에 안 된다.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시각은 오전 8시 50분. 나름 여유가 있어 보였으나 정상까지 왕복시

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서둘렀다. 차는 계곡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 나무가 우거져 하늘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계곡엔 물이 넘쳐흐른다. 한국의 산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에 들어서는 순간 원시림 분위기가 확 스민다.

등산로는 계곡 따라 잘 정돈돼 있다. 이미 많은 등산객이 다닌 듯했다. 간혹 나무에 리본이 걸려 있다. 한국 등산객이 다녀간 흔적이다.

등산로 옆 계곡엔 소나무들이 있다. 그중엔 옛날 신들이 술을 많이 마셔 지쳤을 때 물을 마시며 쉬어가던 '지혜의 폭포'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를 만한 산은 피단산뿐이며, 러시아 사람들도 휴양지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피단산을 많이 오른다고 현지 가이드는 전한다.

계곡 따라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은 완전 원시림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던 원시림과는 차원이 다르다. 폭신한 등산로는 물론이고, 나무와 바위에 온통 이끼투성이다. 이끼는 환경지표종으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이다. 공기 감촉부터 다르다. 가이드 고르디브가 이끼 뭉치를 들어 보인

다. 몇백 년 이상은 된 것 같다. 계곡의 조그만 폭포 옆엔 야영장도 보인다.

가파른 등산로를 지나 능선 위로 올라섰다. 여러 사람이 설 수 있는 널찍한 공터가 나온다. 고목이 넘어져 의자를 대신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다. 거친 바람에 가지만 앙상히 드러낸 자작나무들이 바람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 있다. 평소에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 동해가 저만치 보일 듯한데 짙은 구름 때문에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 짙은 구름 사이로 고인돌 하나가 눈에 띈다. 발해석묘로 추정된다. 안내판이 전혀 없으니 알 수가 없다.

인디애나 존스처럼 지프 탐험 이색 재미

드디어 피단산 정상에 도착했다. GPS로 해발 1,331m다. 현장엔 1,339m로 돼 있다. 정상 주변 동판엔 러시아어로 뭔가를 두 군데나 써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 없다. 정상 나무엔 울긋불긋한 리본에 축구화까지 걸려 있다. 그 옆엔 자전거 고장 난 것까지 방치돼 있다. 헨기가 추락한 듯 프로펠러까지 있다. 정말 온갖 잡동사니가 정상에 널브러



져 있다. 산악문화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불순한 날씨로 정상에 얼마 있지 못하고 하산이다. 하산길은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간다. 너털지대 위에 우뚝 솟은 피단산, 고구려 후손이 세운 발해, 그 태조 대조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을 호령했던 산이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볼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인디애나 존스'의 오지탐사대 같은 지프에 올라탔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돌아오는 지프 안에서 잊지 못할 희한한 경험을 했다. 지프는 길이 워낙 험해 바퀴가 물에 완전 잠기거나 앞뒤 공중으로 몸이 떴다 내려앉는 순간을 수시로 겪게 한다. 차가 가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인디애나 존스의 탐험 버금가는 수준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 이상한 현지 남녀를 만났다. 둘 다 러닝셔츠 정도의 상의에 수영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눈에 확 들어왔다. 야영장에 놀러 온 남녀 같았다. 이들은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었다. 가이드 겸 운전사인 고르디브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같이 가자고 했다. 수영복만 입은 남자가 좌측우돌 울렁거리는 지프 뒷좌석에 탔다. 마침 여자가 내 앞에 앉았다. 부딪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차 벽을 밀며 용을 썼다. 비키니의 여자는 내 등산화 위에 태연히 앉았다. 발을 뻗 수도 없고, 앞에 있지만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불편하고... 그런 자세로 약 40분을 갔다. 고문 중의 고문이었다. 슬쩍 결눈질로 비키니를 보면 호기심만 더할 뿐이었다.

한번 상상해 보라. 깊은 산중 수영복을 입은 남자가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내 등산화 위에 앉아 40분간을 흔들리는 지프를 타는 모습을. 이들이 떠난 뒤 아쉽기보다는 한결 홀가분했다. 📷



- 1 가이드 고르디브가 피단산에 널려 있는 이끼를 들어 보이고 있다.
- 2 팻말에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자'고 적혀 있다. 우리와 산악문화가 다른 탓인지 코렐이 늘어져 있는 등 문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3 피단산 정상 올라가는 길에 발해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덤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방법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항 비행을 일주일에 두 차례 운항한다. 부산에서도 있다. 배로 가는 방법은 동해시에서 DBS크루즈페리로 갈 수 있다. 하절기(3~11월) 일요일 오후 2시 출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수요일 오후 2시 출발. 일주일에 한 차례 운항한다. 동절기(12~2월)엔 동해에서 월요일 출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요일 출발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할일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살던 집. 현재는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맑은 물, 맑은 산에서의 1박 2일 힐링캠프

폭염 물렸거래! 천연 에어컨 '인산랜드'

폭염주의보도 힐링캠프의 열정은 막을 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지리산 자락 삼봉산으로 모여들었다. 힐링캠프에는 맛있는 죽염 요리, 죽염제조장 견학, 지리산 트레킹, 인산의학 특강 등등 더위를 잊을 만큼 즐거운 힐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글 한상현 사진 김중연

삼봉산 기운을 가득 채우다

힐링캠프 둘째 날 아침 인산동천 산책길에서 김한실 화가(오른쪽 맨 앞)와 친구들을 만났다. 열은 안개가 운치를 더하는 삼봉산 중턱에서 자연의 기운을 몸속 깊숙이 담아내고 있었다.



깊은 산속 옹달샘
“시원해요”

지리산 서암정사 내 자연석굴 앞에는 바위를 비집고 나오는 맑고 시원한 샘이 있다. 약수 한 모금으로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제 소금기동인가 봐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하얀 소금기동으로 변한다. 캠프 참가자들이 소금기동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다.

산 위에 떠 있는 연못

서암정사 경내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산 중턱에 야기지기하게 꾸며진 연못을 거닐다 보면 시원한 산바람이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



지리산 칠선계곡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히는 지리산 칠선계곡은 일곱 선녀와 꿈에 얽힌 전설이 있는 곳. 서암정사에서 칠선계곡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에다 나무그늘이 있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



원적외선 듬뿍 받으세요

죽염 제조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9회 고열 용융 과정이다. 1,6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죽염이 물처럼 녹는다.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돼 잠깐만 있어도 가슴 속까지 뜨거워진다.



산 아래 풍경이 일품이네~

인산연수원은 해발 500m에 위치해 어느 곳에서도 산 아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벤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적한 시골 풍경을 감상해 보자.



올가을엔 쑥뜸 한번 뜨실래요?

8월 7일은 입추다. 쑥뜸의 계절이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쑥뜸 철을 맞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김종호 인산가 이사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리산 트레킹을 마친 직후라 피로가 몰려올 텐데도 김윤세 인산가 회장의 강연이 시작되자 참의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해 초집중해 듣고 있다.



제가 직접 퍼 먹고, 떠봤죠^^

아프지도 않은데 《신약》 책에서 하라는 대로 죽염 퍼 먹고 쑥뜸 뜬 이가 바로 우성숙 설악산자연학교 교장이다. 인산의학 실천 노하우를 직접 가르치는 우 교장을 만나보자.



경기 과천에서 온 이옥희씨 “죽염은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고친 일등 공신”



힐링캠프에 벌써 8번째 참가하고 있는 이옥희(66)씨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얼굴은 5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동안 피부다. 주름 없이 맑고 밝은 동안 피부의 비결을 묻자 ‘죽염’이라고 답했다.
“제가 온천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죽염을 소개해 줬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인산가를 물어 물어 찾아가죠. 그렇게 만난 죽염은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을 고치는 일등 공신이 됐어요.”
그는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안구건조증이 생겼는데 자기 전 죽염을 입에 물고 녹여 눈에 넣는다고 한다. 인공눈물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죽염 양치로 치주염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오랜 자랑거리다.
“위가 좋지 않거나 치주염 있는 분을 만나면 무조건 죽염을 소개합니다. 제가 죽염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인산가 직원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도 죽염이 좋다는 사실을 흔저만 알 수 있나요.”
이옥희씨는 8월 힐링캠프 예약도 이미 마쳤다. 죽염의 날 행사 때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 번이라도 더 인산가를 찾고 싶어서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박선식씨 “죽마고우 등 인산가 제품 먹고 백혈병·궤양성 대장염 극복”

마음의 고향인 함양에 오기까지 23년이 걸렸다는 박선식(60)씨. 그의 밝고 건강한 웃음 뒤엔 말 못 할 아픔이 있었다. 1993년과 97년 불치병으로 알려진 궤양성 대장염과 백혈병에 걸렸던 것.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정도 가면 하혈까지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탈진해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치 방법이 없더군요.”
입원과 퇴원을 7번이나 반복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병원 도서관에서 우연히 《죽염요법》을 발견했다.
“책에 나온 대로 구운 마늘을 죽염에 찍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사가 멈추고 더 이상 하혈을 하지 않더군요. 1년 만에 완치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1997년 백혈병이 찾아왔다. 항암 치료를 하니 뼈밖에 남지 않았다. 목에 염증이 생겨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죽염간장을 상복했다. 조금씩 염증 부위를 적시면서 삼켰다. 죽마고우를 40~45알씩 하루 7번 먹었다. 1년 만에 완치돼 집에 돌아오면서 인산의학이야말로 진정한 참의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됐다.





김윤세의 壽테크 · 老子 건강학

갓난아이에게서 생명의 자연을 배운다

도덕경 제55장



含德之厚，比於赤子。蜂蟄虺蛇不螫，攫鳥猛獸不搏。骨弱筋柔而握固。未知牝牡之合而股作，精之至也。終日號而不嗁，和之至也。知和曰常，知常曰明，益生曰祥，心使氣曰強，物壯則老，

是謂不道，不道早已。

함덕지후, 비어적자. 봉채웬사불석, 화조맹수불박. 골약근유이악고, 미지빈모지합이최작, 정지지야. 종일호이불사, 화지지야. 지화활상, 지상활명. 익생활상, 심사기활강. 물장즉노, 시위부도, 부도조이.

』

덕을 두터이 지닌 이는 생명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갓난아이와 다름없이 천진무구天眞無垢한 속성을 보인다. 갓난아이는 무지無知, 무욕無慾에다 일절 해물지심害物之心이 없고 아무런 분별심도 없으므로 벌이나 전갈, 살무사 등 독물들이 경계하거나 쓰지 않고 사나운 새, 무서운 짐승들도 달려들거나 할퀴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운데 손을 꼭 쥐는 것과 암컷, 수컷의 교합을 모르지만 고추가 서는 것은 정력의 충만함을 드러내 보여준다. 온종일 소리 내어 울더라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로움의 극치라 하겠다. 조화로움을 잃지 않아야 항상성恒常性和 영원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성과 영원성에 대해 알고 실천하여 그것을 체득하는 것을 밝음이라 하겠다.

성장해 가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생명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상서로움이라 하겠고 점차 인위人爲, 인공人工이 가미되면서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굳세다고 할 것이며 만물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되면 최고조의 성장기를 넘으며 쇠퇴기에 접어들어 마침내 노화가 시작되고 점차 생명력이 줄어들게 되나니 이를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일찍 끝나게 된다.

인생길의 멀고도 험난한 여정旅程을 가노라면 술한 역경逆境과 난관難關을 겪게 되고 천진무구했던 갓난아이의 심성心性 또한 세파에 시달리며 천성天性이라 할 본성本性을 상실한 채 '부도不道의 삶'으로 서서히 변모되어 가게 마련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갓난아이의 소박한 천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줄곧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연성을 지닌, 살아 있는 생명이라면, 또한 자연의 대도를 심득心得하여 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회복 탄력성에 의해 갓난아이의 천진무구한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뼈와 근육의 유연성을 상실하고 이런저런 일로 소중할 정력을 낭비 허비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고 항상성과 영원성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멸망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한다. 침당굴처럼 얹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고민하며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복잡다단한 세상일에 떠밀려 삶의 궤도인 큰 길을 이탈하여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이에 허우적거리다 보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일대사大事 큰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없이 마침내 저승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갓난아이는 온몸에 정기가 충만하여 무엇인가 잡을 게 있으면 늘 손으로 꼭 쥐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시시때때로 고추가 발기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연스러운 필요성에 의해 울기도 하고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서 장시간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늘 조화와 항상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목이 쉬지 않는다. 갓난아이의 천진무구한, 통나무樁·原木의 소박함으로 상징되는 제 천성을 온전하게 지니지 못하고 오염시키고 산화시키며 어떤 의도에 의해 손상을 초래하여 천장지구天長地久之 자연수명을 스스로 단축시켜 요절夭折의 길을 택하는 이들을 보면서 노자는 말한다.

"조화와 항상성, 가공하거나 꾸밈이 없는 질박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천성을 상실하고 도리道理에 부

합하는 삶에서 벗어나 부도의 삶으로 접어들면 한창 무성하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갓난아이의 소박한 천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줄곧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연성을 지닌, 살아 있는 생명이라면, 또한 자연의 대도를 심득心得하여 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 늘 깨어 있는 정신의 소유자로서 영원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회복 탄력성에 의해 갓난아이의 천진무구한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몸 또한 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심분 발휘하여 세상의 각종 암, 난치병, 괴질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떤 계기로 인해 병마病魔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리 오래지 않아 갓난아이의 '생명의 자연自然'을 회복하여 병고病痛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본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도리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덕스러움의 극치는 천진무구, 무지, 무욕, 유약柔弱, 조화와 균형, 항상성을 지닌 갓난아이의 속성을 지니고 천성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싸우거나, 경쟁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자연 수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자 가르침의 핵심이라 하겠다.

도덕경 제56장



知者不言，言者不知。塞其兌，閉其門，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是謂玄同。

故不可得而親，不可得而疏，不可得而利，不可得而害，不可得而貴，不可得而賤，故爲天下貴。

지자불언, 언자부지, 색기태, 폐기문,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시위현동.

고불가득이친, 불가득이소, 불가득이이, 불가득이해, 불가득이귀, 불가득이천, 고위천하귀.

』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고 반풍수와 도사인 척하는 '도척'들은 사실과 다르고 진실도 아니며 더구나 진리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으면서도 공연히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키는 흑세무민의 망언妄言과 망동妄動을 일삼는다는 점을 거울삼아 황금보다 소중한 인생의 귀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도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고 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구멍을 틀어막고 그 문을 닫으며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얹히고설킨 것을 풀어내며 그 빛을 조화시켜 세상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를 '현묘한 도리와 하나 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하여 자연과 하나 된 그런 이들은 가까이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

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받을 수도 없고 천하게 대할 수도 없는 법이어서 천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가 됐건 나라의 수도에 대해서는 나라 업무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임금을 위시하여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모여 사는 관계로 전국 각 지역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만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 안 가본 사람이 한양의 구석구석까지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잘도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이다. 요즘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서울 안 가본 X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떠드는 법"이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히말라야의 고봉 16좌를 완등한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에게 "에베레스트는 어떤 곳입니까?" "왜 그 위험천만의 산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리도 끈질기게 올라갑니까?"라고 물으면 너 무나도 잘 알고 수많은 경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설명할 내용이 하도 많아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 순간 머뭇거리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산에 대해 호기심도 많은데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많은 사람은 산 이야기만 나오면 출렁 나서서

히말라야 고봉들의 이름들을 죽 꿰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도 훤히 무산소 등정이 어떻고 하면서 잘도 주위 넘기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나저나 히말라야 고봉들, 특히 에베레스트에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니요, 직접 다녀온 것은 아니고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이며 언젠가 저도 한 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필자가 경영하는 인산가는 중소기업의 하나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린 회원이 약 25만 가정에 달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그리 흔하지 않은 '행복한 기업'이다. 인산가의 회원 중 골수로 분류되고 특공대로 불리는 사람들 중 제1군은 엄청난 분량의 죽음을 섭취하면서 언제 어디에 가든 자랑스럽게 스스로 홍보대사라 자처하며 죽음의 효용성에 대해 열 올리고 설명하는 이들이다. 제2군은 《신약聖藥》 책 제25장 '영구법靈久法의 신비'를 인용해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쑥뜸의 특징과 그 불가사의한 효용성에 대해 거침없이 달변가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이들은 대개 스스로 다량 섭취하여 그 효과를 체험한 이들이어서 설명한 내용을 경험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쑥뜸에 관한 이야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쑥뜸의 효능 효과가 매우 폭넓고 다양한 만큼 쑥뜸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서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인데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런 효과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실감나게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쑥뜸을 떠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 직접 확인해 볼 요량으로 "그러는 분은 당연히 인산쑥뜸을 떠보셨지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당연히 떠본 경험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의 대답은 "내가 직접 뜬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떠본 뒤에 내게 자랑삼아 설명을 해주어 떠본 사람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끝난다.

아는 사람은, 즉 도리와 덕성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늘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도리에 부합하고 그로 인해 저절로 두터운 덕성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대개는 마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傳化되는 자리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마치 무불통달의 도사처럼 도란 이런 것이고 덕이란 그런 것이며 도를 깨달으려면 화두를 참구하여야 하며 화두 참구의 간화선을 수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면 천하사에 대해 두루 훤히 알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청산유수로 설명을 이어간다.

이때 좌중의 누군가 궁금증이 발동해 "혹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깨달으셨다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어느 선사가 그렇게 말했고 근세의 어느 선지식도 그런 법문을 설한 바 있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고 반풍수와 도사인 척하는 '도척'들은 사실과 다르고 진실도 아니며 더구나 진리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으면서도 공연히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키는 흑세무민의 망언妄言과 망동妄動을 일삼는다는 점을 거울삼아 황금보다 소중한 인생의 귀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노자 가르침의 본질이라 하겠다. ㉔

글 김운세(본지 발행인,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



로켓 타고 확인한 것보다 명쾌한 인산 선생의 우주론

인산 선생의 우주론과 만물론은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다만 일상에 자연과 상생하려는 마음이 녹아 있고 그 행동이 마음과
일치할 때 '인체는 소우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한상헌 일러스트 정인성

“우주의 화생지주化生之主는 음기陰氣이다. 음기는 냉기冷氣로 화化하고 냉기에서는 습기濕氣가 생기고 습기에서 수기水氣가 화한다. 수기는 극냉極冷에 냉동되어 수억 년을 동결하니 곧 태극太極이며 음양陰陽이 미분시未分時이며 수로는 일-이다. 여기서 빙수氷水세계가 생기고 은하계銀河界는 수억 개의 빙세계가 화生化成하여 중성층衆星層을 이룬 것이며 이 은하계의 중성으로부터 고열사능선高熱射能線이 상통상합相通相合하여 대화구체가 형성되었으니 태양太陽이라 한다. 지구는 이 태양으로부터 분열된 화구이며 태양의 용액溶液이다. 지구의 지중에 우기雨氣로 스며드는 수기는 제천諸泉을 생성하고 다시 제천제강諸泉諸江과 대해大海를 이룬다. 지구 외부의 수기는 흑색黑色을 생성하고 지구 중심부의 화기火氣는 적색赤色을 생하는데 흑색은 흑색소黑色素, 적색은 적색소赤色素로 화한다. 흑색소에서는 수생목水生木의 원리로 청색靑色이 화하고 적색소에서는 화생토火生土의 원리로 황색黃色이 화한다. 흑색소가 적색소를 얻으면 청색은 초목草木으로 화하는 종균種菌인 세균細菌으로 화하며 적색소가 흑색소의 힘을 얻으면 황색은 무골충無骨蟲으로 화하는 종균인 세균으로 화하고 세균이 백색白色의 힘을 얻으면 유골충有骨蟲으로 화하며, 화기와 수기가 평등하면 양성분자陽性分子로 화하고 양성분자는 남성男性의 정충精蟲으로 화하여 비로소 대해 중에 동물세계動物世界가 시작하게 된다.”

최근 서양학자들의 연구도 상당히 동양적 사고로 전환되어 '우주의 어느 한 곳, 즉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우주 전체에 작용한다'는 가정하에 연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태극, 음양, 사상, 팔괘, 구궁, 십간, 십이지, 십장생, 팔십일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우주의 최소 최대 단위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天眼通者 세계인 목성과 탐사 인공위성 Juno

서사시와 같은 이 장엄한 말씀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문에 대한 대담으로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찌랴. 이보다 더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아니면 뉘라서 우주宇宙의 시원始原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성인이 설說하신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만물의 오고 감을 망령되이 말하여 성인의 말씀에 용雜容雜함을 무릅쓸 것인가. 그것은 깊은 산골 풀 속에 묻혀 사는 한갓 초부樵夫가 언감생심焉敢生心 나설 바가 아니다. 굳이 뜻을 붙이자면 인산仁山 선생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여 거듭 세상에 알리자는 것이며 그 깊은 뜻을 사량思量함은 각자의 품수靈受에 따라서 한정될 것이다.

최근 서양학자들의 연구도 상당히 동양적 사고로 전환되어 '우주의 어느 한 곳, 즉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우주 전체에 작용한다'는 가정하에 연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태극太極, 음양陰陽, 사상四象, 팔괘八卦, 구궁九宮,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 십장생十長生, 팔십일음八十一音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우주의 최소 최대 단위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불인不仁한 성품으로 보아 수폐지가 알을 낳고 낙지의 턱에 수염이 생기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그들은 에타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노Juno'라는 인공위성을 목성木星에 쏘아 올렸다고 잔뜩 흥분하여 떠들며 대며 무슨 잔치라도 할 듯 들떠 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얻어진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인산 선생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그들의 기계 기술은 목성의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로 무공徒勞無功에 불과할 뿐이다.

목성의 세계는 청색인靑色人間의 세계이고 그곳에 상통하는 동물은 지룡地龍과 신통神龍이며 해명慧明한 각자覺者이니 곧 천안통자天眼通者만이 관계가 있는 세계이다. 어찌 잠인睡人이 그곳에 들락거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한들 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허욕으로 가득 찬 투자를 우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쏟아 붓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리는 지구촌의 기아를 해결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그 분수에 넘치는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

산 선생은 양인洋人들이 시도하는 황당한 우주개발의 행태가 아닌 곳에서 우주촌宇宙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전광체電光體 인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던가.

조상이 남겨준 우주적 이치를 부정하는 세대

아무튼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땅에 있다. 이 땅의 상당수 백성들이 조상이 남겨주신 우주적 이치를 부정하고 있지를 않은가. 다 같은 할아버지 후손인데 어떤 손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두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적 이론'이라며 그 것을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통렬히 힐난한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도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일까? 우리와는 달리 몽매夢寐에도 그리워하던 윌리엄과 윌슨 가문의 후손이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위라도 되는 것일까? 어렵 반쯤어치도 없는 소리다. 축수(數) 미달의 전형적 인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의 조상이 못났다 해도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른이며 천지간에 부모보다 앞서는 인연줄은 없는 것이다. 어찌 감히 환부역(換父子易)을

租하겠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산 선생의 우주론宇宙論

과 만물론萬物論은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다만 일상日常에 자연과 상생相生하려는 마음

이 녹아있고 그 행동이 그 마음과 일치할

때 '인체는 소우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설하신 인산

선생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파

도처럼 밀려올 때 <신약>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라. 인산의학의 계승자

이며 인산가의 대표이사인 김윤세 선

생의 저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는

그 세계의 입문서로서 신약神藥의 세계로

다정하게 안내할 것이다. [인]



바로잡습니다

[인산의학] 6월호 기쭈(둘째 줄) '언어 수준의 번역'을 '언어 수준의 번역'으로 바로잡습니다.

'도정노인(道正老人)' 옛 나루터에서 손님을 실어 나르던 늙은 뱃사공을 지칭한다. 인산 선생의 의술과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대업으로 여기는 그의 전언傳言에는 삶의 지혜와 깊이가 담겨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유황 발마늘



인산가 회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황 발마늘'이 드디어 출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마늘 농사가 흉작이어서 일찌감치 주문이 마감되는 바람에 많은 회원이 아쉬워하고 당혹스러워했다.

유황 발마늘의 효능은 먹은 사람이라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마늘의 인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상승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마늘 작황이 썩 좋은 편이 못 되는데다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공급이 달리는 바람에 이미 마늘 주문이 일찌감치 마감되었다고 한다.

인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처방 중에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이 우리나라 발마늘이다. 마늘에는 훌륭한 약성도 많지만 독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워 먹되 약성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껍질째 구워야 한다.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익힌 마늘을 껍질을 까고 인절미 떡에 콩고물 묻히듯이 죽 염에 굴려서 뽕뽕 문힌 뒤 입 안에서 마늘 알갱이가 죽처럼 될 때까지 충분히 잘 씹어서 삼킨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우라면 하루에 9통 이상, 암이나 난치병, 괴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으라고 하셨다.

자연학교에서는 마늘 철이 되면 무쇠 솥에 구워서 끼니마다 둘러앉아 마늘 까먹는 일이 중요한 하루 일과에 속한다. 그러곤 서로 방귀를 트는 일부터 한다. 남녀노소 부끄럽히고 체면이고 뭐고 엄청난 방귀를 뀌기 시작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악취가 심한, 고약스러운 방귀가 쉽 없이 나온다. 엄청난 양의 숙변이 빠지고 변비 또는 설사가 해결된다. 몸이 차서 늘 추위를 타던 사람이 몸이 더워지고 입맛이 돌아 밥이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이 잘 오고 나른하던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면역력은 당연히 높아지니 어떤 질병이든 예방도 되고 극복이 되는 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빠르게 좋아지는 서로의 모습에 놀라고 그 모습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인산의학은 질병을 공격·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피를 맑혀 독을 풀고 마늘을 먹어 체온을 높여 병마를 해결하는 해독·보완을 위주로 하니 실천하면 할수록 몸이 더욱 좋아지는 이 세상 최고의 자연요법임을 속히 알아차리기를 기원한다. [인]



'인산의 자연치유요법'
우성숙 교장이 전합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성숙 교장은 인산의학의 명상·산행·자연식을 제안하며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문의 033)672-3930

115명의 젊음이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났다



'희망 없음'에서 '희망 있음'으로 바뀐

대한민국 청춘 해시태그 Hashtag

2016 여름 대한민국은 별 재미없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 속에 굿 뉴스도 해피 뉴스도 구경하기 힘들다. 전 세계에서 들리는 테러의 공포, 국내에는 눈치 없이 터지는 고급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의 역한 냄새. 그러는 와중에 엄홍길의 더위를 식히는 채보를 전하고 있다.

엄홍길은 지난 2013년에 시작한 '155마일 DMZ 대장정'을 금년에도 치러냈다. 7월 9일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가진 통일대장정팀은 115명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여대생은 47명. 동쪽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한 대장정은 서쪽 임진각에서 7월 23일 대장정 완주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금년에 유난히 무더운 여름 땀과 비바람을 뚫고 155마일 대장정을 끝낸 젊은 얼굴들. 그들의 얼굴에서 필자는 대장정 참가 젊은이들의 해시태그가 바뀌고 있음을 새삼 발견한다.

2016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해시태그는 '#희망 없음'이다. 그런데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해

시태그는 '#희망 있음' 또는 '#희망 만들기'로 변해 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이 나라의 많은 젊음이 스스로를 '흙수저'라 부르는 상황이니, 대장정 참가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필자가 완주식에서 만난 젊음은 이미 '흙수저'가 아니었다. 그 대장정에서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났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재탄생한 젊음들. 엄홍길이 그 흙수저들의 산모였다.

엄홍길의 강의를 들을 적마다 필자는 울고 싶었다

필자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영웅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은 2016년 현재 약 100조 원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한 빌 게이츠. 그는 그래서 최근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억되고 있다.

21세기 영웅 중 또 한 사람은 엄홍길이다. 그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세상에 내놓았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에 오를 때마다 죽음과 마주했다. 안나푸르나 등반에 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했다.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성한 다리로 올라갔다. 네 번째 도전에는 다리에 철심을 박고 올라갔다. 가능성 제로의 등반이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을 각오했다고 한다. 필자는 엄홍길의 강의에서 당시 죽을 것을 각오했고 안나푸르나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

었다. 들을 적마다 울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곤 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창출하는 방법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저앉지 않을 힘과 기량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돈 내놓고 한 일을, 엄홍길은 목숨 내놓고 해냈다.

젊음들이, 죽엄처럼 이 시대 짹짹한 주인공이 돼라

완주식 날의 임진각. 필자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다. 이제 여러분은 겁날 것이 없다. 인생의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강하게 마주 설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격려사를 하면서도 필자는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2016년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을 때, 포켓몬이 속초에 나타났다고 법석을 떨 때도 왔던 그 느낌이다.

다른 나라의 기업과 재벌이 알파고나 포켓몬고를 만들기에 여념 없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골목빵집 죽이기'에 열심이었고,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여성의 생리대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리대 가격 올리기에 혈안



이 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젊음의 해시태그는 '#희망 없음'이 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장정에 참여한 젊음들은 이제 약골들이 아니다. 동네 빵집의 실망, 생리대의 절망에서 희망을 창출하는 방법을 엄홍길로부터 전수받은 젊음이다.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의 굵이굵이에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적마다 엄홍길을 생각해라. 그가 죽음의 계곡 안나푸르나에서, 어떻게 그 크나큰 절망을 극복했는지를 생각해 내라"고 격려사를 하며 필자는 계속 목이 메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걱정할 것 없는 젊음으로 성장해 있다.

싱거운 인간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싱거운 인간들의 비리와 죄악을 접할 때마다, 땀별이 내리쬐는 별관에서 염분 보충을 위해 입에 물고 있던 인산죽염을 생각하며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짹짹한 젊음으로 성장할 것이다.

'싱거운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절망할 때마다, 술 마시고 싶은 밤마다, 짹짹한 인간이 돼라. 인산죽염처럼 짹짹하게 살라'고 몸으로 가르친 엄홍길의 당부들 그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칼럼]



김재원

전 여원 발행인 / 인터넷신문 '여원뉴스' (www.yeowonnews.com) 회장 겸 대표 칼럼니스트 / DMZ 여성관광 진흥사 / 서울여성평등지원위원회 / 예술의전당 자문위원 / Miss Intercontinental 한국대회장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2016년 인산가 사업설명회'

정직한 인산가 · 건강한 인산 제품 알렸다

'2016년 인산가 사업설명회'가 지난 7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비즈니스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인산가와 함께 건강을 지키고 사업에서의 성공도 이루기 위해 약 100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열기로 가득했던 그날의 현장을 담았다.

글 김효정 사진 임영근



인산 선생의 가르침대로 죽염제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인산가가 지난 7월 7일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판매 채널을 넓힘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인산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사업설명회는 김윤세 회장의 특별 건강 강연과 조현규 사장의 사업 비전 발표로 채워졌다.

김윤세 회장의 건강 강연... 참석자들 공감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참석자가 모여 행사장이 북볏다. 인산가 홍보 동영상에 끝나

고 김윤세 인산가 회장이 무대에 오르자 참석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인산가와 함께하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평생 이 자자한 김 회장의 건강 강연을 듣는다는 것에 더 큰 기대를 갖는 모습이었다.

"인산가 대리점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산 선생의 가르침대로 참의료를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사업도 잘되면 좋은 것이지요. 인산가는 인산 선생이 자연요법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죽염과 다양한 건강제품을 만들고 판

1 조현규 인산가 사장이 인산가 사업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필기를 하며 김윤세 회장의 강연을 집중해서 듣는 참석자.
3 한 참석자가 설명회장 한쪽에 전시된 인산가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둘러보고, 인산 선생의 강연 내용과 자필원고 등이 수록된 <신약본초>를 읽고 있다.
4 참석자들은 '인산가 예비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인산가와 함께하는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살기 좋은 세상, 인산가와 함께 모두가 120세 천수를 누리길 바랍니다."

김윤세 회장은 인산의학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했다. 인산가 매장을 열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 어떤 설득보다 큰 힘을 가진,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은 강연이었다.

조현규 사장, 사업 비전 제시

김 회장에 이어 참석자들 앞에 선 조현규 인산가 사장은 실무적인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성장하며, 국내 건강식품 시장이 매년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 인산가의 안정적인 시장성을 강조했다. 또 인산가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간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죽염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강조했다. 인산가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과 매장 규모별로 예상되는 수익성을 차례로 설명한 조 사장은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략이 훌륭해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은 결국 좋은 제품과 정직한 기업 정신에 있다"며 말을 맺었다.

사업설명회에서 만난 사람들



"인산가 사업 목표 공감... 좋은 인연 기대"
오공근(68 · 서울 중랑구)

인산가 대리점 오픈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김윤세 회장의 명강연을 듣고 나니 인산가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 체온의 중요성, 현대의학의 맹점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인산가가 추구하는 가치 아닐까요? 오늘부터 인산가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30년 전 맺은 인연, 습인습 특약점에 관심"
고광덕(63 · 서울 강서구)

30년 전에 친구 통해 인산가를 소개받고, 죽염을 몇 병 구매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염 덕을 봐서 컨디션이 좋아졌었는데, 몸이 나이지니 그간 죽염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연히 지인 통해서 인산가 사업설명회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참석했습니다. 제 아내가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산가의 사업 비전을 듣고 보니 습인습 매장을 열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극강한 火力으로 온갖 病 물리치는 인산쑥뜸!

설악산 자연학교에서 쑥뜸 뜨는 법 배우며
인산 건강법 실천하자

8월 13(토)~14일(일) 설악산 자연학교에서
인산쑥뜸 치유크램프가 열립니다

설악산자연학교 힐링캠프 및 휴양을 위한 장기 체류 안내

캠프 일시	8월 13일(토) 오후 5시 입소~14일(일) 오후 1시 종료
내용	죽염과 유향발마늘을 구워 먹으며 인산의학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쑥뜸에 도전하는 참가자에게 쑥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한다.
준비물	일반: 산행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보온병, 물컵, 세면도구, 수건 등 쑥뜸: 일반 준비물에 손거울, 부드러운 솔(볼터치용), 작은 가위, 반창고, 티슈 등
힐링캠프 참가비	10만 원(1인 기준, 1박 3식) *쑥뜸방(장기 체류) 이용료 6만 원(1인 기준, 1박 3식, 1일·일주일·보름·장기 체류 등 일정 관계없이 체류비는 동일함)
교통편	항공: 김해→양양공항→택시로 20분 버스: 동서울터미널→설악산 오색정류장(2시간 20분 소요)→걸어서 5분
장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안터길 42-1 (다음, 네이버에서 '설악산 자연학교' 검색)
신청/문의	010-9000-3931, http://cafe.daum.net/woosungsook (우성숙의 설악산자연학교)

우성숙 교장은 30년 전 우연히 《神藥》 책을 읽은 후 인산의학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神藥》 책에 적힌 대로 실천하고 자연치유를 추구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연인이다. 인산쑥뜸을 비롯해 죽염 등 인산의학의 여러 가지 건강법을 행복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힐링 하우스, 설악산 자연학교의 주인장이기도 하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렐프 에머슨의 시를 생각하며, 건강과 관련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설악산자연학교는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지켜드리는 힐링 하우스입니다.

희망, 도전... 죽염종가 · 건강 바이오 기업이 저절로 만들어질 리 없다!

제29회 '죽염의 날' 행사! 함양 축제의 장으로 오세요!

'질 좋은 소금은 많이 먹어도 좋다'라는 역발상을 기반으로 시작된 죽염의 산업화!

죽염이라는 한국산 자연물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9년을 달려온 인산가가 그 짝짤했던 질주를 기념하며 여러분을 함양 본가로 초대합니다.

정 많은 소금장수 김윤세 회장이 그 길고도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며, 회원 여러분께 더 많은 기쁨과 희망, 건강에 대한 염원을 전해드립니다.

부디 오셔서 죽염이 가미된 인산가 정찬의 깊은맛을 경험하시기 바라며,

삼봉산 계곡물보다 더 맑은 술로 건배를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흥겨운 '죽염의 날' 축제 현장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제29회 '죽염의 날' 행사

일시	8월 27일(토), 기념행사는 12시부터 시작
장소	인산연수원(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48-4)
행사 내용	'죽염의 날' 기념식 · 축하공연 · 죽염 음식 시식회 · 죽염 장터 운영
셔틀 버스	인사동 SM면세점 앞에서 아침 7시 30분 출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1인당 1만 원(왕복 교통비)
문의	1577-9585(인산가 통합 서비스센터) *서울 지역 당일 왕복 버스 운행 · 점심 제공 및 먹거리 장터 운영 *행사 당일 서울 지역에 한해 셔틀 버스를 운행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탑승 가능합니다.

